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최소 성취수준 보장 교수·학습 지원 자료집

문학





Contents

I 자료 개발 개요



| | |
|--------------------|---|
| 1. 고교학점제 시행의 의미 | 2 |
| 2.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의 이해 | 3 |
| 3. 자료 개발의 목적 | 4 |
| 4. 자료 개발 및 구성 | 4 |
| 5. 자료의 활용 | 5 |

II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작성



| | |
|----------------------------|----|
| 1. <문학> 성취기준 · 평가기준 및 성취수준 | 8 |
| 2.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작성 | 12 |

III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에 따른 예시 평가 문항



| | |
|--------------------------|----|
| 1. <문학> 최소 성취수준 예시 평가 문항 | 18 |
|--------------------------|----|

IV 부록



| | |
|-----------------------------|-----|
| 1. <문학> 예시 평가 문항 모음 | 96 |
| 2. <문학> 예시 평가 문항 정답 및 채점 기준 | 134 |
| ■ 참고문헌 | 139 |

I

자료 개발 개요

1. 고교학점제 시행의 의미
2.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의 이해
3. 자료 개발의 목적
4. 자료 개발 및 구성
5. 자료의 활용





1 고교학점제 시행의 의미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 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여러 측면에서 준비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 감염병 발생, 학령인구 급감 등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학교가 짜주는 획일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적성과 희망 진로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여 공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학생이 원할 경우,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계열의 과목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은 다른 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수 자원, 학습 공간, 학교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고교학점제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 | 주요 내용 |
|-----------------|--|
| ①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이수학점 적정화, 과목구조 개편 및 과목 다양화 중·고교 학교급 전환 시기 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학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 이수기준 정립(과목출석률, 학업성취율 충족 시 학점 취득) 학점 기반 졸업체제 마련(출석일수 충족 → 출석+학점 취득) |
| | 평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순차 적용)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 착수(2028학년도 대입 적용) |
| ② 학생 중심 학교운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체계화, 수강신청 시스템 구축 창의적 체험활동 개편, 에듀테크 기반 교육혁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
| ③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의 다과목 지도역량 강화, 학교 밖 전문가 교육 참여 활성화 학습·공용·지원공간 등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지역자원 연계, 교육소외지역 여건 개선 등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

(출처: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2021.2.17., 교육부)



고교학점제는 2020년에 마이스터고에서 우선 도입된 후,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일반계고 제도 부분 도입, 2025년 전체 고교 전면 도입의 로드맵으로 추진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 과정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나,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여,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이처럼 고교학점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의 희망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육 체계 마련**과 더불어 **모든 학생을 위한 책임교육 강화**에 있다. 학교와 교사는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는 것을 예방해야 하고 미도달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생들의 부족한 성취수준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의 이해

고교학점제에서 학사 운영은 학점 이수 기반으로 바뀌게 된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 이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과목 이수 기준이란 “학생이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들을 일정 시간을 거쳐 학습하면서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취수준에 도달했을 때 학점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준거” 로 정의된다.

현재 교육부에서 제시한 과목 이수 기준은 과목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이며, 학업성취율 구분은 다음과 같다.

| 〈 현행 〉 | | | 〈 향후(2025학년도~) 〉 | | |
|-----------------|-----|---|------------------|----------|-------|
| 성취율 | 성취도 | | 성취율 | 성취도 | |
| 90% 이상 | A | ⇒ | 90% 이상 | A | |
| 80% 이상 ~ 90% 미만 | B | | 80% 이상 ~ 90% 미만 | B | |
| 70% 이상 ~ 80% 미만 | C | | 70% 이상 ~ 80% 미만 | C | |
| 60% 이상 ~ 70% 미만 | D | | 60% 이상 ~ 70% 미만 | D | |
| 60% 미만 | E | | 40% 이상 ~ 60% 미만 | E | ↑ 이수 |
| | | | 40% 미만 | I | ↓ 미이수 |

* 미이수 과목에 통상 F학점을 부여하나, 단어의 의미(Fail)를 고려하여 I(Incomplete) 사용

위의 오른쪽 표에서 E(40% 이상~ 60%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목 이수를 위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최소 성취수준이다. 최소 성취수준이란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 교육부에서 개발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매뉴얼 (국어/영어/수학)(2022)」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단원/영역/핵심 개념:** 과목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의 개발 단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의 단원/영역별 성취수준 개발 단위를 준용함
- **일반적 특성:** 평가기준 '하' 수준과 성취수준 E를 재검토하여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적합한지 살피고 필요 시 새롭게 진술함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일반적 특성의 진술문을 하위 항목으로 나눈 것으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 **수행 활동/판단 근거:** 최소 성취수준의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보여줄 만한 전형적인 모습을 가급적 구체적인 양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교사가 이를 통해 그 수준 차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3 자료 개발의 목적

자료 개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되었다. 하나는 모든 학생들이 일정 수준의 배움에 도달할 수 있는 책임교육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23년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1학년 공통과목 국어, 영어, 수학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의무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앞서 최소 성취수준 설정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사 역량강화 지원이다. 물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새로운 과목들과 성취기준이 고교에 적용되겠지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해 과목 이수 판정 근거를 설정하는 교사 역량은 단기간에 갖추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하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과목과 성취기준을 활용한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진술문에 따른 예시 평가 문항, 그리고 미도달 예방 및 학생 지원 교수·학습 자료를 교육청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다가올 고교학점제하에서 교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최소 성취수준 설정 역량과 그에 따른 책임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미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자료의 개발 및 구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자료는 공교육이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여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진술문 개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연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2019)」에서 제시한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절차와 방법 및 교육부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매뉴얼(국어/영어/수학)(2022)」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본 자료는

- I. 자료 개발 개요,
 - II.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작성,
 - III.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에 따른 예시 평가 문항
- 으로 구성되었다.



I 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배경과 이에 따른 교육청의 자료 개발 방향 및 내용 구성, 자료 활용 방안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II 장에서는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문학>의 성취기준·평가기준 및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 연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2019)」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을 준용하였다. 진술문은 최소 성취수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행 활동과 판단 근거로 구성되어 작성하였다. 진술문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문학>의 성취기준·평가기준과 성취수준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이를 함께 제시하였다.

III 장에서는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에 따른 예시 평가 문항 개발 자료를 제시하였다. 예시 평가 문항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진단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유형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방 지도나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에서 예시 평가 문항을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과제 제시형 보충·예방 지도에서 예시 평가 문항을 과제로 제시하고 점검 학습하는 과정에서 최소 성취수준 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 자료의 활용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각 진술문에 따른 예시 평가 문항의 활용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업 시간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진단 도구에 활용
- 지필 평가 시 활용하여 최소 성취수준 도달 여부 확인에 활용
-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 또는 미도달 학생의 보충 학습 지도에 활용

II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작성

1. 〈문학〉 성취기준 · 평가기준 및 성취수준
2.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작성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1. 〈문학〉 성취기준·평가기준 및 성취수준

가 과목 성취기준·평가기준

(1) 문학의 본질

| 교육과정 성취기준 | 평가기준 | |
|--|------|--|
|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 상 |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다. |
| | 중 |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
| | 하 |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교육과정 성취기준 | 평가기준 | |
|--|------|---|
|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 상 |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주제 의식이 상호 영향 관계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비평적으로 탐구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 | 중 |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주제 의식이 상호 영향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고,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 | 하 |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주제 의식을 파악하고, 이들이 서로 어울리는지 평가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 상 |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 | 중 |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을 활용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 | 하 |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작품을 둘러싼 맥락 중 일부를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활용할 수 있다. |
|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 상 | 다른 형식의 예술 작품, 역사와 철학 등의 인문 분야, 사회문화적 현상 등과 관련지어 문학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할 수 있다. |
| | 중 | 다른 형식의 예술 작품, 역사와 철학 등의 인문 분야, 사회문화적 현상 등과 관련지어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할 수 있다. |
| | 하 | 다른 형식의 예술 작품, 역사와 철학 등의 인문 분야, 사회문화적 현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 교육과정 성취기준 | 평가기준 | |
|--|------|---|
| <p>[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p> | 상 |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깊이 있게 수용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작품에 대하여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의 수용 결과를 발전시킬 수 있다. |
| | 중 |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
| | 하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 타인과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 <p>[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p> | 상 |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으로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자신의 주제적 관점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창작할 수 있다. |
| | 중 |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으로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재구성하거나 자신의 주제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창작할 수 있다. |
| | 하 | 작품을 읽고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재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다. |
| <p>[12문학02-06]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p> | 상 |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비평적으로 수용하고 타인과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
| | 중 |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
| | 하 | 매체에 따라 표현 방법과 미적 특성이 다름을 알고 이를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수용에 활용할 수 있다. |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 교육과정 성취기준 | 평가기준 | |
|--|------|--|
| <p>[12문학03-01]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p> | 상 | 한국 문학의 개념을 구성하는 조건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등 입체적으로 구성된 한국 문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 중 | 한국 문학의 개념을 구성하는 조건들을 파악하고,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등 입체적으로 구성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다. |
| | 하 | 한국 문학의 개념을 파악하고 한국 문학의 범위에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
| <p>[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p> | 상 |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구현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 | 중 |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구현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 | 하 |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들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 <p>[12문학03-03]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와 구현 양상을 탐구하고 감상한다.</p> | 상 | 한국 문학의 갈래별 주요 작품들을 통해 문학의 기본갈래가 역사적 갈래로 구현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능동적으로 탐구하며 감상할 수 있다. |
| | 중 | 한국 문학의 갈래별 주요 작품들을 통해 문학의 기본갈래가 역사적 갈래로 구현되는 양상을 탐구하며 감상할 수 있다. |



| 교육과정 성취기준 | 평가기준 | |
|---|------|---|
| | 하 | 한국 문학의 갈래별 주요 작품들을 통해 갈래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다. |
|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 상 | 한국 문학 작품과 관련된 시대적 상황을 찾아 작품의 이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다. |
| | 중 |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찾아 작품의 이해에 활용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
| | 하 |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찾을 수 있다. |
| [12문학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 상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하여 읽고, 한국 문학이 지닌 보편성과 한국 문학만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 | 중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하여 읽고, 한국 문학이 지닌 보편성과 한국 문학만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하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하여 읽고,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
| [12문학03-06]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들을 감상하고 한국 문학의 발전 양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 상 | 지역 문학,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들을 감상하고 한국 문학의 발전 양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
| | 중 | 지역 문학,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들을 감상하고 한국 문학의 발전 양상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
| | 하 | 지역 문학,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들을 감상하고 한국 문학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

(4) 문학에 관한 태도

| 교육과정 성취기준 | 평가기준 | |
|--|------|--|
|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 상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과 작품에 대해 타인과 소통하는 활동에 즐겨 참여한다. |
| | 중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과 작품에 대해 타인과 소통하는 태도를 보인다. |
| | 하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 |
| [12문학04-02]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 상 |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
| | 중 |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며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보인다. |
| | 하 | 일상생활에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가꾸는 데 관심을 보인다. |



나 과목 성취수준

| 성취수준 | 일반적 특성 |
|------|---|
| A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생산하며 문학문화를 향유한다. 민족문화로서의 한국 문학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한국 문학의 특성을 능동적으로 탐구하며 감상한다. 문학 활동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 B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수용, 생산하며 문학문화를 향유한다. 민족문화로서의 한국 문학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한국 문학의 특성을 탐구하며 감상한다. 문학 활동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참여한다. |
| C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수용, 생산하며 문학문화를 향유한다. 민족문화로서의 한국 문학을 이해하고 한국 문학의 특성을 탐구하며 감상한다. 문학 활동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참여한다. |
| D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두 가지 이상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됨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학 활동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타인과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
| E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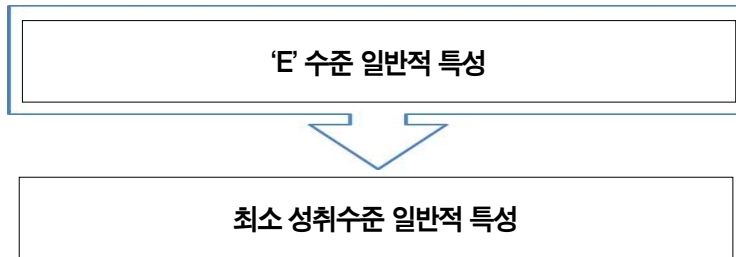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2.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작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학〉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문학에 관한 태도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의 본질 영역은 1개 성취기준, 문학의 수용과 생산 영역은 6개 성취기준,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영역은 6개 성취기준, 문학에 관한 태도 영역은 2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총 15개의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15개 성취기준의 평가기준이 개발되어 있는데, 학기말의 최종 성취수준은 공통과목 〈국어〉처럼 영역별로 제시되지 않고 모든 영역을 한데 모아 ‘과목 성취수준’으로 진술되었다. 이러한 현행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은 1개의 ‘일반적 특성’으로 진술하였으며, 이를 6개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12개의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작성하였다.

가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작성



(1) 진술문의 ‘일반적 특성’ 작성

| 성취수준 | 일반적 특성 |
|------|--|
| E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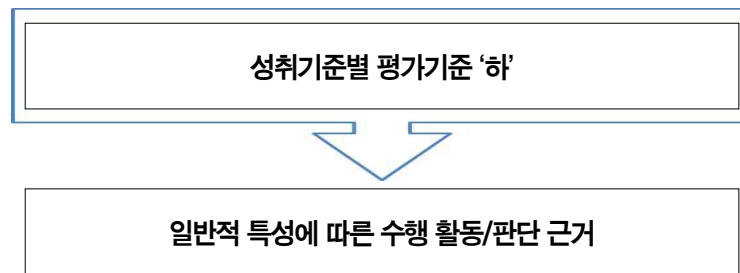


| 성취수준 | 일반적 특성 |
|---------|--|
| 최소 성취수준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
|---|---|
| ①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한다. | ②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감상한다. |
| ③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재구성한다.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⑥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2) 진술문의 '수행 활동/판단 근거' 작성



성취기준별 평가기준 '하'

-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효용과 가치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주제 의식을 파악하고, 이들이 서로 어울리는지 평가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작품을 둘러싼 맥락 중 일부를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활용할 수 있다.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 타인과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작품을 읽고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재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다.
- 한국 문학의 개념을 파악하고 한국 문학의 범위에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들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한국 문학의 갈래별 주요 작품들을 통해 갈래별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며 감상할 수 있다.
-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찾을 수 있다.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하여 읽고,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는 데 관심을 보인다.
- 일상생활에서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가꾸는 데 관심을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행 활동/판단 근거

-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안다.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어울리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중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 타인과 서로 소통한다.
 - 작품을 읽고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재구성한다.
 -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안다.
 -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감상한다.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분적으로 찾으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려는 태도를 보인다.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나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에 따른 예시 평가 문항 개발

일반적 특성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 예시 평가 문항 수 |
|---|--|------------|
| ①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안다. | 4 |
| ②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감상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어울리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3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중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4 |
| ③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재구성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 타인과 서로 소통한다. | 3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을 읽고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재구성한다. | 3 |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안다. | 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감상한다. | 3 |
| 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분적으로 찾으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3 |
| ⑥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려는 태도를 보인다. | 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3 |
| | | 총 40문항 |

Ⅲ

〈문학〉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에 따른 예시 평가 문항

1. 〈문학〉 최소 성취수준 예시 평가 문항





1 <문학> 최소 성취수준 예시 평가 문항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①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안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p> <p>“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p> <p>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 하고 있었다.</p> <p>“그게 뭐냐?”</p> <p>“철거 계고장⁰ 예요.”</p> <p>“기어코 왔구나!”</p> <p>어머니가 말했다.</p> <p>“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p> <p>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어머니가 말했다.</p> <p>“스무날 안에 무슨 뽕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p> <p>“입주권¹을 팔려고 그래요?”</p> <p>영희가 물었다.</p> <p>“팔긴 왜 팔아!”</p> <p>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p> <p>“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p> <p>“아파트 안 가.”</p> <p>“그럼 어떻게 할 거야?”</p> <p>“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걸 우리 집이야.”</p> <p>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p> <p>“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p> <p>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p> <p>“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났으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p> </div> |



| | <p>“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네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다.” 영호가 말했다. “그만 뒤.”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p> <p>* 계고장: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 입주권: 새로 지은 아파트 따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p> | | | | | | | | |
|-------------------------------------|--|---------------------|-------|----|------------|----|-----------------|-----|---------------------|
| | <p>● <보기>는 윗글의 창작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u>우리</u>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1960년대 말부터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생긴 도시 빈민가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무허가 집들을 강제 철거하고 사람들을 이주시켰다. 철거민들은 공중화장실조차 없는 언덕배기에 천막이나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며, 철거민의 입주권은 부동산 투기로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거래되었다.</p> <p>① 우리는 철거민의 입주권을 받지 못했다. ② 우리는 철거민의 입주권을 팔 수 없었다. ③ 우리는 새 아파트로 입주할 돈이 없었다. ④ 우리는 깨끗한 새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⑤ 우리는 깨끗해진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았다.</p> | | | | | | | | |
| <p>예시 답안</p> | <p>③</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성취 여부</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문학의 인식적 기능</td> <td>도달</td> <td>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안다.</td> </tr> <tr> <td>미도달</td> <td>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문학의 인식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안다. | 미도달 |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문학의 인식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안다. | | | | | | | |
| | 미도달 |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기>를 제시하여 소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의 상황을 통해 도시 빈민가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 집중하게 한다. • 독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 | | | |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 | | | | |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①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한다. | | | | | | | | |
| 수행 활동/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안다. | | | | | | | |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p> <p style="text-align: right;">-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p> </div> <p>◎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골라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보기〉 _____</p> <p>‘연탄재’는 초라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상징한다. 화자는 ‘연탄재’를 통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태도를 ㉠(긍정/부정)하고 있다.</p> </div> <p>㉠: _____</p> | | | | | | | | |
| 예시 답안 | 긍정 | | | | | | | | |
| 채점 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width: 30%;">내용</th> <th style="width: 20%;">성취 여부</th> <th style="width: 50%;">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문학의 윤리적 기능</td> <td>도달</td> <td>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안다.</td> </tr> <tr> <td>미도달</td> <td>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문학의 윤리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안다. | 미도달 |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문학의 윤리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안다. | | | | | | | |
| | 미도달 |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 | | | |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다. 내용을 이해하기 좋은 작품을 제시문으로 제시하고,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기〉를 통해 작품의 해설을 제시하였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①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안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옛날 어떤 집에서 아들을 얻어 집안이 온통 축제 판이었다. 만 한 달이 되어, 잔칫날 손님들에게 아이를 보였겠지? 물론 덕담을 들으려고 말이야. 그날 온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애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p> <p>— 우와, 이 아이는 크면 부자가 되겠는데요.</p> <p>부모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고마워했지.</p> <p>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말했다.</p> <p>— 이 녀석, 크면 높은 벼슬하겠습시다.</p> <p>주인도 답례로 그에게 덕담을 해 주었지.</p> <p>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p> <p>— 이 아이는 분명 죽을 겁니다.</p> <p>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죽도록 때렸지.</p> <p>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자가 되거나 벼슬을 할 거리는 건 거짓말일 수도 있지. 그런데 거짓말은 좋은 보답을 얻었고, 진실은 죽도록 얻어맞은 셈이지. 너는……?”</p> <p>“선생님, 저는 거짓말도 하기 싫고, 얻어맞기도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지요?”</p> <p>“그래, 그럼 이렇게 하려무나. 우와—! 이 아이는 정말! 이걸 보세요! 얼마나……. 어이구! 하하! 허허허 헛, 허허허허!”</p> <p style="text-align: right;">- 루쉰, 「헛, 허허허허!」</p> </div> <p>● 다음은 뒷글을 읽은 학생의 감상문의 일부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대우를 받지만, □□을/를 말하는 자는 죽도록 얻어맞는다. 거짓을 말하기는 쉬우나 □□을/를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p> <p>거짓말도 하기 싫고, 얻어맞기도 싫다고 말하는 ‘나’에게 선생님은 ‘헛, 허허허허!’ 하고 웃으라고 대답한다. 작가는 선생님의 마지막 대답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에 대한 풍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다.</p> </div> |



| | | | |
|----------------------------|---|-------|---------------------|
| 예시 답안 | 진실(사실) | | |
|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문학의 윤리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안다. |
| | | 미도달 |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다. • 학생의 감상문의 일부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제시하고, 작품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찾도록 구성하였다. | | |



| 영역 | 문학 | | | | | | | | |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 | | | | | |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①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한다. | | | | | | | | | |
| 수행 활동/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안다. | | | | | | | | |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山)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甘露)*같이 단 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山) 너머는 평안도(平安道) 땅도 보인다는 이 산(山)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백석, 「백화(白樺)*」</p> <p>*감로(甘露): 달콤한 액즙. *박우물: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는 얇은 우물. *백화(白樺): 흰 자작나무.</p> </div> <p>● 윗글을 감상하며 얻을 수 있는 미적 즐거움이 아닌 것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골집'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한다. ② '캥캥' 우는 여우의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③ '장작'의 축축한 감촉을 떠올리게 한다. ④ '샘'의 달콤한 물맛을 상상하게 한다. ⑤ '자작나무다'의 반복이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 | | | | | | | | |
| 예시 답안 | ③ | | | | | | | | | |
| 채점 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내용</th> <th style="width: 20%;">성취 여부</th> <th style="width: 60%;">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문학의 미적 기능</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달</td> <td>문학의 미적 기능을 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도달</td> <td>문학의 미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문학의 미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미적 기능을 안다. | 미도달 | 문학의 미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 문학의 미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미적 기능을 안다. | | | | | | | | |
| | 미도달 | 문학의 미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 | | | | |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의 미적 기능은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의 아름다움을 통해 감수성을 기르고 정서를 순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학이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하는 문학의 미적 기능을 아는지 확인한다. | | | | | | | | | |



| | |
|------------------|--|
| 영역 | 문학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②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어울리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山 절망의산, 대가리를밀어버 린, 민둥산, 벌거숭이산 분노의산, 사랑의산, 침묵의 산, 함성의산, 증인의산, 죽음의산, 부활의산, 영생하는산, 생의산, 희생의 산, 숨가쁜산, 치밀어오르는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산, 꿈의산, 그러나 현실의산, 피의산, 피투성이산, 종교적인산, 아이너무나너무나 폭발적인 산, 힘든산, 힘센산, 일어나는산, 눈뜨는산, 눈뜨는산, 새벽 의산, 희망의산, 모두모두절정을이루는평등의산, 평등한산, 대 지의산, 우리를감싸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감싸주는어머니</p> <p style="text-align: right;">- 황지우, 「무등(無等)」</p> </div> <p>◎ 〈보기〉는 윗글을 읽은 후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 보기 〉</p> <p>지수: 이 작품의 제목인 「무등」은 광주광역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산의 이름이라던데, 알고 있었어?</p> <p>민지: 아, 그래서 '山(산)'으로 시작해서 계속 '……산'이라는 구절이 반복되는구나.</p> <p>지수: 맞아. 이 작품은 무등산이라는 산이 지닌 의미를 작품의 내용으로 담기 위해 형식도 내용과 어울리게 되어 있잖아.</p> <p>민지: 오, 듣고 보니 그렇네. 아래로 내려올수록 행의 길이가 길어지도록 배열하여 ㉠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네.</p> </div> <p>㉠: _____</p> |



| | | | |
|----------------------------|---|-------|-------------------------------------|
| 예시 답안 | 산 | | |
|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문학의 내용과 형식 | 도달 | 현대시에서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 | | 미도달 | 현대시에서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없다.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읽고, 작품에 담긴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형식을 파악함으로써 문학은 내용과 형식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②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어울리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아니리]</p> <p>그때는 어느 뎨고 팔월 추석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떡을 친다, 지지고 볶느라고 피 피- 이놈의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내는데, 홍보집은 냉랭하여 바람이나 세차게 부는구나.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홍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홍보 마누라는 졸고 앉았다가 설움이 복받치어 신세 한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겠다.</p> <p>[㉠]</p> <p>[A]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너르*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하면 잘 타는고. 복두칠성님이 복 마련을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이 세상에 내보낼 때 목숨과 복을 점지하느냐.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이년의 팔자는 어이하어 이 지경이 웬일이냐. 몹쓸 년의 팔자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작자 미상, 「홍보가」</p> <p>* 원수너르: 원수 놈의.</p> </div> <p>● <보기>는 윗글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선생님 : 관소리 사설은 이야기 부분인 ‘아니리’와 노래 부분인 ‘창’,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노래인 ‘창’은 내용 전개나 인물들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 장단으로 불러요. 진양조는 가장 느린 장단으로 슬픈 느낌을 주고, 중모리는 보통 빠르기의 장단으로 안정감을 주며, 중중모리는 조금 빠른 장단으로 흥취를 돋우고 우아한 맛이 있어요. 자진모리는 빠른 장단으로 명랑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고, 휘모리는 아주 빠른 장단으로 흥분과 긴박감을 주어요. 그럼, 윗글의 [A] 부분은 어떤 장단으로 부르면 좋을까요?</p> <p>학생 : 홍보 마누라의 신세 한탄이 주된 내용으로 슬픈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_____ ㉠ 장단으로 부르면 좋겠어요.</p> </div> <p>㉠: _____</p> |



| | | | |
|-------------------------------------|--|---|-----------|
| <p>예시 답안</p> | <p>진양조(가장 느린)</p> | | |
| <p>채점 기준</p> | <p>내용</p> | <p>성취 여부</p> | <p>기준</p> |
| <p>문학의 내용과 형식</p> | <p>도달</p> | <p>판소리 사설에서 내용과 장단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p> | |
| | <p>미도달</p> | <p>판소리 사설에서 내용과 장단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없다.</p>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소리 사설에서 내용(인물의 정서)과 형식(장단)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 판소리의 장단(형식)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의 연관성을 통해 내용에 어울리는 형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한다.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②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어울리는지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뚝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푼 실을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 베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짠 베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p> <p style="text-align: right;">(중략)</p> <p>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뚝돌[°]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p> <p style="text-align: right;">- 문병란, 「직녀에게」</p> </div> <p>* 오작교: 칠월칠석날 저녁에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 위해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에 놓는 다리. ° 노뚝돌: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 발돋움에 쓰려고 대문 앞에 놓은 큰 돌.</p> |



| | <p>● 다음은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맞으면 ○, 틀리면 × 하시오.</p> <p>(1) '견우직녀' 설화 모티프를 활용하여 이별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p> <p>(2)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p> <p>(3) 동일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을 강조하고 있다. ()</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1) ○ (2) ○ (3) ×</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48 787 613 844">내용</th> <th data-bbox="613 787 756 844">성취 여부</th> <th data-bbox="756 787 1403 844">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48 844 613 1058" rowspan="2">문학의 내용과 형식</td> <td data-bbox="613 844 756 950">도달</td> <td data-bbox="756 844 1403 950">현대시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613 950 756 1058">미도달</td> <td data-bbox="756 950 1403 1058">현대시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문학의 내용과 형식 | 도달 | 현대시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미도달 | 현대시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문학의 내용과 형식 | 도달 | 현대시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현대시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작품을 제시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②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중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p> <p>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p> <p>뜰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p> <p>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p> <p>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p> <p>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澗)*하는 것일까?</p> <p>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p> <p>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p> <p>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p> </div> |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육첩방: 일본식 다다미 6장을 깔아 놓은 방.
* 침전(沈澣): 의식이나 사고, 행동 등이 내부에 가라앉음.

●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는 작가가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쓴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 지식인의 현실 인식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윤동주 시인을 잘 알고 있는 국문학자 정병욱 교수는 “윤동주 시인은 대인 관계에서 모가 나는 일이 없었기에, 누구도 그를 비난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너그러웠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여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시인을 평하기도 하였다.

- ① ‘육첩방’과 ‘남의 나라’를 통해 작가가 일본에 있을 때 쓴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대학 노트’와 ‘강의 들으러 간다’를 통해 작가가 유학 중에 쓴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현실 인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부끄러운 일이다’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를 통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너그러웠던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예시 답안

⑤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작가와 연결하여 작품 감상 | 도달 | 작품을 작가와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다. |
| | 미도달 | 작품을 작가와 연결하여 감상할 수 없다.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작가의 생애와 성격에 대한 배경 설명을 <보기>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와 작품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②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중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장끼와 까투리가 들판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주우러 들어가다가, 붉은 콩 한 알이 덩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장끼가 먼저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하기를,</p> <p>“어허, 그 콩 먹음직스럽구나!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마다하랴? 내 복이니 어디 먹어 보자.”</p> <p>옆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까투리가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p> <p>“아직 그 콩 먹지 마오. 눈 위에 사람 자취가 수상하오. 자세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쓴 흔적이 심히 괴이하니, 제발 덕분 그 콩일랑 먹지 마오.”</p> <p>“자네 말은 미련하기 그지없네. 이때를 말하자면 동지선달 눈 덮인 겨울이라.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어 여러 산에 나는 새 그쳐 있고 땅에 사람의 발길이 끊겼는데 사람의 자취가 있을까 보냐?”</p> <p>까투리도 지지 않고 입을 연다.</p> <p>“사리는 그럴 듯하오마는 지난밤 꿈이 크게 불길하니 스스로 잘 생각하여 행동하소.”</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니 까투리는 할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자 장끼란 놈 얼굴 콩지깃을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갯짓하며 조춤조춤 콩을 먹으러 들어가는구나. 반달 같은 헛부리로 콩을 짹 짹 으니 두 고괘 등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가 마치 마차를 맞치는 듯 와지근 똑딱 푸드드득 푸드드득 변통 없이 치었구나.</p> <p>이 꼴을 본 까투리가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하여 땅을 치며 말하기를,</p> <p>“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집안을 망치고 안 들어도 망신하네.”</p> <p>하면서, 위아래 넓은 자갈밭에 자락 머리 풀어 헤치고 당글당글 뒹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나 앉아 잔디 풀을 쥐어뜯어 가며 애통해 하고, 두 발을 땡땡 구르면서 성을 무너뜨릴 듯이 대단히 절통해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작자 미상, 「장끼전」</p> </div>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②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중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가)</p> <p>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툇툇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땀처럼 맺은 줄고 맺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툇툇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찌룩찌룩 눈꽃은 쌓이고 (하략)</p> <p style="text-align: right;">- 광재구, 「사평역에서」</p> <p>(나)</p> <p>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p> </div> |



| | <p>벌써 삼십 분이나 지났군.</p> <p>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여덟 시 십오 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뭐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p> <p>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서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 목 옆 외눈박이 수은등이 경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 보고 있다. 송이눈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 툽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두 개를 맞붙여서 세워 놓은 듯한 꼬락서니로, 그나마 녹이 잔뜩 슬어 있어서 그간 겨울을 몇 차례나 맞고 보냈는지 어림잡기조차 힘들다. 난로의 허리께에 툽밥 모양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 새로는 툽밥이 타들어 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비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임철우, 「사평역」</p> <p>●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평역'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② 활기차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난로', '눈'이라는 소재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⑤ '막치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②</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내용</th> <th style="width: 20%;">성취 여부</th> <th style="width: 50%;">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작품 감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달</td> <td>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도달</td> <td>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작품 감상 | 도달 |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다. | 미도달 |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없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작품 감상 | 도달 |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없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평역에서'와 '사평역'의 경우,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에, 두 작품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에 좋은 작품이다. 상호 텍스트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작품들이 서로 연관성을 지니고 창작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②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중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p>(가)</p> <p>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간,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죽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p> <p>* 샷: 샷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 권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를 얻어 살았다. * 나죽손: 저녁 무렵. * 숲: '옆'의 방언.</p> <p>(나)</p> <p>[앞부분 줄거리] 이훈의 상처를 지닌 시인 두현은 오 년 만에 아내와 교제하던 때 자주 들르던 교외의 한 찻집을 찾아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p> <p>에이, 시시해. 그림 전 부인은 진짜 유학을 갔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으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p> |



그럼 요즘도 아이 꿈을 꾸세요?
 아뇨. 요즘은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는 편이죠.
 나무요?
 나무입니다. 아주 험걸차고 씩씩한 녀석이죠. 바로 수갈매나무입니다. 갈매나무가 암수딴
 그루 나무인 건 아시죠?
 암수딴그루라뇨?
 왜, 은행나무처럼 암수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태껏 보아 온 건 모두 암그루였죠.
 아직 수그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아마 어느 깊은 계곡 어디에선가 뿌리를 박고 홀로 눈
 보라와 찬비와 거친 바람을 맞으며 추운 계절을 곳곳이 건디며 힘차게 수액을 높은 우듬지*
 위로 뽑아 올리는 자태를 간직한 수그루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럴 날이 꼭 올 겁니다.
 제 꿈이 그렇거든요. 그놈을 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몹시 앓을 땐 내
 가 직접 그 수갈매나무가 되는 꿈을 꾸요. 아주 편안한 나무가 되는 꿈을 꾸요.
 - 김소진, 「갈매나무를 찾아서」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 <보기>는 (가)와 (나)에 대한 학생의 감상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보기 〉

(가)의 화자는 ㉠ 와/과 헤어져 타향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고, (나)의 ‘두현’은 이혼
 의 상처를 지닌 채 쓸쓸히 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또
 한 (가)와 (나)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 (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는 굳센 이
 미지를 지닌 소재로, (가)의 화자와 (나)의 등장인물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유사합니다.

㉠: _____
 ㉡: _____

| | | | |
|----------------------------|--|-------|----------------------------|
| 예시 답안 | ㉠: 가족(아내, 동생들, 부모), ㉡: 갈매나무 | | |
|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작품 감상 | 도달 |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다. |
| | | 미도달 |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없다.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내용 이해는 물론 작품 간의 연관성을 함께 파악해야 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작품의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보다는 두 작품 사이의 공통점 및 유사성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항을 통해 성취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의 경우, 제목의 의미와 향토적 시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이 작품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③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재구성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 타인과 서로 소통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은 사람에게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해충 ‘이[蠃]’와 ‘개[犬]’의 죽음을 소재로 한 고려 시대의 글이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어느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p> <p>“어제저녁에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 너무 참혹해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맹세코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p> <p>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p> <p>“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를 끼고 앉아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p> <p>손님은 실망한 표정으로,</p> <p>“이[蠃]는 작은 벌레 아닙니까? 나는 큰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한 말인데, 당신은 일부터 이를 예로 들어 대꾸하니 이것은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p> <p>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p> <p>“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말·돼지·양·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은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놈과 작은 놈을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못 믿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뼈마디와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살이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빨을 소의 빨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세요. 그 후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p> <p>라고 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이규보, 「슬견설(蝨犬說)」</p> <p>* 대붕 : 하루에 구만 리(里)를 날아간다는, 매우 큰 상상(想像)의 새.</p> </div> |



-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대화이다. **나**와 **손님** 중, 자신이 공감하는 입장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 보기 〉

학생 1: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동일하다'는 '나'의 의견에 공감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蝨]와 모기가 해롭다는 건 사람의 편견 일 뿐이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싫은 건 똑같이 싫은 거야.

학생 2: 하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나는 '손님'의 말에 더 공감돼. 나는 사람이고 이[蝨]나 모기는 해충인걸. 그럼 내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도 생명체이니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약도 먹지 말라는 거네.

나의 의견: 나는 '나'() / '손님'()의 의견에 공감해. 왜냐하면

예시 답안

나는 '나'의 의견에 공감해. 왜냐하면 몸이 크고 힘이 있다고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야.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작품의 공감적·비판적· 창의적 수용 | 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생각으로 소통한다. |
| | 미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생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참고할 수 있도록 상반되는 예시 반응을 제시하였다.
- 작품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지도한다.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경우 의견의 수준보다 표현 자체가 중요한 일임을 강조한다.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③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재구성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 타인과 서로 소통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꺾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p> <p>“느 집엔 이거 없지?”</p> <p>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p> <p>“너, 봄감자가 맛있단다.”</p> <p>“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p> <p>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p> <p>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쉼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진 또 뭐야 싶어서 그 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험하게 달아나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p> <p>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레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p> <p style="text-align: right;">- 김유정, 「동백꽃」</p> </div> <p>* 마름 :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 배재 : 마름과 소작인 사이에 교환한 소작권 위임 문서.</p> |



● 다음은 뒷글을 읽은 학생들이 나는 대화이다. 학생들의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점순이가 ‘느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도 남몰래 감자를 챙겨 주는 걸 보면,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 ①
- 학생 2: 맞아.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를 보니, 내 마음을 몰라주던 그 애가 문득 떠올랐어. …………… ②
- 학생 3: 그 애가 누군데? 궁금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봐.
- 학생 2: 누군지는 비밀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게 혼자 점순이를 좋아했던 ‘나’처럼 나만의 추억으로 간직할래. …………… ③
- 학생 3: 그런데 점순이네와 ‘나’의 집은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잖아. 그래서 나는 점순이를 연애 상대로 보지 않았던 것 아닐까? …………… ④
- 학생 1: 아, 그런 거였어?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니까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
- 학생 2: 맞아. 그리고 자존심 상한 점순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쏜다는데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나는 너무 궁금해. …………… ⑤

| | | | |
|----------------------------|---|-------|-----------------------------|
| 예시 답안 | ③ | | |
|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작품의 공감적·비판적 · 창의적 수용 | 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생각으로 소통한다. |
| | | 미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생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작품을 읽으며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을 작품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친숙한 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문학 감상의 긍정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감상 결과를 타인과 공유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타자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③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재구성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 타인과 서로 소통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data-bbox="428 789 878 1097"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v> <p>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 죄악을 향한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p> <p>소말리아 한 어린이의 오체투지*의 예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자정이 넘어 취한 채 귀가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계운 내가 우연히 펼친 <TIME> 지의 사진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p> <p style="text-align: right;">- 이승하, 「이 사진 앞에서」</p> <p>* 금세기 : 지금의 세기. * 호의호식 :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 오체투지 : 불교에서, 절하는 법의 하나. 먼저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함.</p> |



● 다음은 윗글을 감상한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학생들의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이 작품은 작가가 술을 마시고 음식을 깨워 내다가 우연히<TIME>지에 실린 어린이의 사진을 보고 느낀 반응을 시로 표현한 것이라.
 학생 2: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이라는 구절이 '사진' 속 어린이와 같은 이들에게 무관심했던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 ①
 학생 1: 1연을 보면 시행이 짧아지면서 '인류', '인간', '우리', '나'로 축소되잖아. 이것이 문제가 '나'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②
 학생 2: 맞아, 2연은 '소말리아의 한 어린이'의 의미가 '나'에게까지 확장되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그걸 시구로 시각화했다니 정말 대단한걸. ③
 학생 1: 시각적으로는 축소되었다가 확장되는 느낌을 주는 게 독특하네. 그렇지만 시의 매력인 운율적 요소가 없어 아쉬운걸. ④
 학생 2: 마지막 시행 다음에 생략된 말이 화자가 반성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여운이 남아. ⑤

| | | | |
|----------------------------|--|-------|---------------------------------|
| 예시 답안 | ④ | | |
|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작품의 공감적·비판적·창의적 수용 | 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으로 소통한다. |
| | | 미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사진과 글의 내용 맥락을 파악하도록 한다. ● 작품에서 화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한 매체 이용, 시행의 길이, 통사 구조 등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감상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③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재구성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읽고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재구성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1인칭 주인공 시점)</p> <p>나는 승민이를 좋아한다 이 사실을 아는 건 세상에 나밖에 없다</p> <p>(1인칭 관찰자 시점)</p> <p>승민이가 진희의 얼굴을 보고 있다 진희와 눈이 마주치자 승민이는 컷불까지 빨개진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찢어진다</p> <p>(3인칭 관찰자 시점)</p> <p>진희, 승민, 수연이 벤치에 앉아 있다 승민이는 진희의 얼굴을 보고 있고 수연이는 승민이의 얼굴을 보고 있다 진희와 눈이 마주치자 승민이는 컷불까지 빨개지고 ㉠ <u>그 모습을 본 수연이는 입술을 깨문다</u></p> <p>(전지적 작가 시점)</p> <p>승민이는 진희를 좋아한다 짝사랑이다 수연이는 승민이를 좋아한다 역시 짝사랑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이장근, 「슬픈 시점」</p> </div> |



| | <p>● ㉓에서의 ‘수연’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소설로 바꿔 써 보시오. (시점은 자유롭게, 분량은 100자 ± 20자)</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 <p>80자</p> <p>100자</p> <p>120자</p> </div>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승민이가 진희를 좋아했던 거야?’ 진희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며 얼굴이 새빨개진 그를 보는 것이 힘들다. 진희는 내 단짝인데, 하지만 자꾸 승민이가 눈에 들어오는데, 난 이제 어떡하지.</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 padding: 5px;">내용</th> <th style="width: 20%; padding: 5px;">성취 여부</th> <th style="width: 60%; padding: 5px;">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작품의 재구성 과 창작</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도달</td> <td style="padding: 5px;">작품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표현한다.</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미도달</td> <td style="padding: 5px;">작품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표현하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작품의 재구성 과 창작 | 도달 | 작품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표현한다. | 미도달 | 작품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표현하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작품의 재구성 과 창작 | 도달 | 작품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표현한다. | | | | | | | |
| | 미도달 | 작품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표현하지 못한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을 재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형식을 쉽게 변용할 수 있도록 소설의 형식을 빌린 시를 제시문으로 선택하였다. 학생들과 작품 속 인물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 인물의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서술자의 시점을 이용하여 서술하게 한다. ● 학생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지도한다. 소설의 경우 인물 관계를 도식화하거나 상황을 표현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이해시킨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③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재구성한다. |
| 수행 활동 /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읽고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재구성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앞부분 줄거리] 왼손잡이 장돌뱅이 허 생원이 조 선달, 동이와 함께 메밀꽃이 핀 달밤에 대화 시장을 향해 간다. 허 생원은 남편 없이 동이를 낳은 동이 어머니가 자신과 봉평에서 하룻밤을 보낸 성서방네 처녀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발을 헛디더 개울에 빠진다.</p> <p>허 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동실동실 가벼웠다.</p> <p>“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물을 끓여 주고, 내일 대화 장 보고는 제천이다.”</p> <p>“생원도 제천으로?”</p> <p>“오래간만에 가 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p> <p>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시니같이 눈이 어둠던 허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p> <p>걸음도 해잡고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p> <p>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p> </div> <p>◎ 다음은 윗글을 웹툰으로 제작하기 위해 스토리보드를 구상하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학생들의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학생 1: 허 생원이 동이의 말을 듣고 발을 헛디더 개울에 빠진 것은 동이가 자기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라서 그런 것 같아.</p> <p>학생 2: 쫄딱 젖은 허 생원이 추위에 떨면서도 표정은 환하게 그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①</p> <p>학생 1: 물이 똑똑 떨어지는 옷을 짜면서도 웃고 있는 허 생원을 그리면 될 것 같아. .. ②</p> <p>학생 2: 좋아, ‘덜덜덜’이라는 글씨를 떨고 있는 허 생원 그림 옆에 써 주자. 그리고 등장인</p> </div> |



| | <p>물의 대화 부분은 말풍선과 함께 한 사람마다 한 칸씩 그려 넣자. ③</p> <p>학생 1: 채찍이 동이 왼손에 들려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니까 생략해도 좋겠어. ④</p> <p>학생 2: 전체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달밤의 풍경과 함께 나귀에 짐을 싣고 걷는 세 사람을 한 칸에 그려 넣는 건 어때? 나귀 목에는 방울을 그려 주고, ‘딸랑딸랑’이라는 글씨로 분위기를 표현하며 마무리하는 거야. ⑤</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④</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44 801 643 851">내용</th> <th data-bbox="643 801 829 851">성취 여부</th> <th data-bbox="829 801 1385 851">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44 851 643 978" rowspan="2">작품의 재구성과 창작</td> <td data-bbox="643 851 829 913">도달</td> <td data-bbox="829 851 1385 913">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643 913 829 978">미도달</td> <td data-bbox="829 913 1385 978">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있다. | 미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없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없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부분 줄거리를 제시하였으며, 작품의 주요 정보를 알고 매체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였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왼손잡이라는 정보는 ‘동이’와 ‘허 생원’이 혈연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장치이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되며, 한 것으로 확대하여 강조해야 하는 필수 정보이다. • 「메밀꽃 필 무렵」은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된 사례가 있는 소설이다. 다른 매체와 함께 비교하며 각 매체의 특성과 연출 의도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③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재구성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읽고 내용,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재구성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p> <p>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p> <p>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p> <p>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p> </div> |



| | <p>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p> <p style="text-align: right;">- 정지용, 「향수」</p> <p>● 다음은 윗글을 영상 시로 제작하는 모둠 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학생들의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학생 1: 정지용의 '향수'를 영상 시로 만들기로 했잖아.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시상의 전개 과정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면 좋겠는데 의견을 말해 줘.</p> <p>학생 2: 그림 1연에서는 넓은 들판을 멀리 바라보는 기법으로 촬영한 영상과 황소의 긴 울음소리와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활용하는 게 좋겠어. …………… ①</p> <p>학생 3: 2연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밤에 늙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되겠어. …………… ②</p> <p>학생 1: 3연에서는 자연 속에서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노는 장면을 구성하여 순수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 나도록 하자. …………… ③</p> <p>학생 2: 4연에서는 검은 머리카락이 풍성한 여동생의 모습과 힘든 농사일로 지친 고단한 아내의 모습을 대비시켜, 가족 간의 갈등을 암시하는 게 좋겠어. …………… ④</p> <p>학생 3: 마지막 5연에서는 가난하지만 소박한 시골집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단란한 모습을 연출해 보자. …………… ⑤</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④</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성취 여부</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작품의 재구성과 창작</td> <td>도달</td> <td>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있다.</td> </tr> <tr> <td>미도달</td> <td>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있다. | 미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없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없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시의 내용을 파악하고 영상 시로 매체를 바꾸어 봄으로써 기초적인 문학 생산 능력을 기르고 문학적 표현의 동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안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기억하나요? 학생: 네.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언어 예술을 말해요. 선생님: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어란 한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사용해 온 언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한글은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으니 그 이전에 지어진 작품들은 한문으로 창작된 것들도 많겠군요. 선생님: 맞아요. 다음 작품은 통일 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가야산에 은거하며 한문으로 창작한 한시입니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狂奔疊石吼重巒 사람 말소리가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人語難分咫尺間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常恐是非聲到耳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故教流水盡籠山 </p> <p style="text-align: right;">-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p> </div> <p>선생님: 이광수라는 작가는 최치원이 쓴 작품들이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를 중국 문학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최치원의 작품을 한국 문학으로 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학생: 그 이유는 _____ ㉠ _____ 때문입니다. 한글로 창작되어야만 한국 문학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문학의 범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군요.</p> </div>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기 ② 작품을 표기한 문자가 한국 문학을 결정하기 ③ 작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국 문학을 판단할 수 있기 ④ 현대에도 한국 문학의 주된 창작자가 한문을 사용하기 ⑤ 한글이 없던 시대에 한국인이 사용한 한문은 한국어로 볼 수 있기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⑤</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내용</th> <th style="width: 20%;">성취 여부</th> <th style="width: 50%;">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이해</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달</td> <td>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도달</td> <td>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이해 | 도달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미도달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이해 | 도달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문으로 창작된 문학 작품들이 과연 한국 문학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해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한국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고 본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한국 문학은 이러한 시기적 변화를 고려한 '한국어'로 된 문학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한문 문학이 한국 문학에서 갖는 의미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안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長者)[*] 침지네 집터 자리라 그래. 장재 침지네 집터 자린데, 거게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살구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각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래네.</p> <p>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게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p> <p>“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땀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두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p> <p>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치를 앓구섬날 독경(讀經)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삼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뭐이라구 하나, 부삼이라구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루 두엄 더미에서 쇠똥을 퍼 가주구서는,</p> <p>“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p> <p>하구서는 바람에다가 쇠똥을 열단 말야.</p> <p style="text-align: right;">- 작자 미상, 「용소와 며느리바위」</p> <p><small>* 용소: 폭포수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있는 깊은 웅덩이. * 인지: 이제. 바로 이때. * 장재: 장자.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 * 불농불사: ‘불농불상(不農不商)’의 잘못.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놀고만 지냄.</small></p> </div> |



●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대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보기> —

학생 1: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한국 문학에는 입말로 전승된 구비 문학과 글말로 전승된 기록 문학이 있다는 내용 기억나?

학생 2: 맞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선녀와 나뭇꾼'과 같은 전래동화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구비 문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신라 시대에 향찰로 기록된 향가와 같은 기록 문학도 한국 문학에 속한다는 사실도 배웠잖아.

학생 1: 그렇다면 '용소와 며느리마위'는 '인지'와 같은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이 많다는 점에서 ㉠ □□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학생 2: 나도 그렇게 생각해.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역 특색이 드러나는 ㉡ □□을/를 사용해 생동감이 넘친다는 점도 들 수 있어.

㉠: _____

㉡: _____

예시 답안

㉠: 구비, ㉡: 방언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이해 | 도달 |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비 문학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
| | 미도달 |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비 문학의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한국 문학은 말로 된 구비 문학(口碑文學)과 글로 된 기록 문학(記錄文學)으로 나눌 수 있다. 구비 문학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문제이다.
- 구비 문학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지문을 직접 들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p>(가)</p> <p>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야! 양반이라고 하니 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 <u>개갈랑</u>이라는 ‘양’자에 <u>개다리소반</u>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p> <p>양반들 야야, 이놈 뭐야야!</p> <p>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 리하였소.</p> <p style="text-align: right;">- 작자 미상, 「봉산 탈춤」</p> <p>* 개갈랑: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매만져서 부드럽게 만든 개의 가죽. * 개다리소반: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흰 질이 낮은 소반.</p> <p>(나)</p> <p>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즈음 의기 자못 양양한 참 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 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p> <p>“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흥, 어느 늙이 아, 어느 늙이 날 뭐라 구 허며, 날 괘시할 늙이 어뵈어, 지금 이 천지에. 흥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p> <p>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를 하며, 괘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특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삼십 도는 넉넉 뺄어진 코를 벌썹벌썹해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p> <p>“내 참, 이래 배두, 응, 동양 삼국 물 다 먹어 본 방삼(方三)복이우. 청얼 못허나, 일얼 못허나, 영어야 뭐 말할 것두 없구...”</p> <p>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 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 <u>그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 선생으로도 불리어지는 시방도 무심 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의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으득으득 씹는다.</u></p> <p style="text-align: right;">- 채만식, 「미스터 방」</p> |



| | <p>● 다음은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문학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이/가 우리 문학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p>————— <보기> —————</p> <p>묘사 비유 우화 풍자</p> </div>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풍자</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내용</th> <th style="width: 15%;">성취 여부</th> <th style="width: 65%;">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달</td> <td>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풍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도달</td> <td>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풍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풍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풍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풍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풍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을 통해 풍자가 우리 문학 작품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왔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 해학과 풍자는 모두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 장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를 보인다. 해학이 대상을 애정으로 감싸 안으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풍자는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비꼬는 것이라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가)</p> <p>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하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하락)</p> <p style="text-align: right;">- 정극인, 「상춘곡」</p> <p>*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지락: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우거진 숲.</p> <p>(나)</p> <p>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 맡겨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p> <p style="text-align: right;">- 송순</p> <p>* 초려삼간: 아주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집.</p> </div> <p>◎ 다음은 (가)와 (나)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가)와 (나)의 화자 모두 □□와/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p> <p>_____</p> </div> |



| | | | |
|----------------------------|--|-------|------------------------------------|
| 예시 답안 | 자연 | | |
|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자연 친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자연 친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시대 사대부의 시가 문학에 드러나는 자연 친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 교사의 도움을 통해 제시문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가)</p> <p>방(房) 안에 헛는 축(燭)불 놀과 이별(離別)하엿관대 곱흐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로논고 우리도 저 축불 갖하야 속 타는 줄 모로노라</p> <p style="text-align: right;">- 이개</p> <p>(나)</p> <p>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져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논고 어와 너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암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나도 입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엿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앓아 헤아리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라 설위 풀쳐 헤니 조물의 탓이로다 (하락)</p> <p style="text-align: right;">- 정철, 「속미인곡」</p> </div> <p>◎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선생님과 나눈 대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p>선생님: 우리의 옛 시가 중에는 신하가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러한 시가들은 대체로 자나 깨나 입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노래라는 형식을</p> </div> |



| | <p>떠었는데, (가)와 (나)에서도 그러한 형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p> <p>학생: 그렇다면 (가)와 (나)의 화자가 이별한 대상은 ㉠ □□(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군요.</p> <p>선생님: 그렇죠. (가)는 촛불에 감정이입하며 이별을 슬퍼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나)는 입을 닦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별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p> <p>학생: (가)와 (나)의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충성스러운 ㉡ □□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p> <p>㉠: _____</p> <p>㉡: _____</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 임금/군주, ㉡: 신하</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성취 여부</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td> <td>도달</td> <td>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충신연주지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td> </tr> <tr> <td>미도달</td> <td>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충신연주지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충신연주지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충신연주지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충신연주지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충신연주지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학에 드러난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충신연주지사적 작품의 표현 효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닳하랴</p> <p>주렴(珠簾)* 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스러지고</p> <p>귀족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p> <p>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p> <p>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p> <p>하이얀 미담이가 우련 붉어라.</p> <p>문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p> <p>이는 이 있을까 저허하노니</p> </div> |



| | <p>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p> <p style="text-align: right;">- 조지훈, 「낙화」</p> <p>* 주렴: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밧.</p> <p>●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_____ <보기> _____</p> <p>한국 문학에 사용되는 소재 중에는 관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우리 선인들은 두견새, 혹은 접동새로 불리는 ‘귀촉도’를 한을 품은 새로 인식하였고, 이 때문에 ‘귀촉도’는 한국 문학에서 쓸쓸하고 슬픈 상황에 즐겨 사용되었다. ‘낙화’는 세상을 피해 은둔하여 살아가는 화자가 _____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슬픔을 귀촉도 울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래한 시이다.</p> <p>_____</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떨어지는 꽃(꽃이 떨어지는 것, 꽃이 지는 것, 낙화 등)</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성취 여부</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td> <td>도달</td> <td>글에 드러난 한(恨)의 정서라는 한국 문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td> </tr> <tr> <td>미도달</td> <td>글에 드러난 한(恨)의 정서라는 한국 문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恨)의 정서라는 한국 문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恨)의 정서라는 한국 문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恨)의 정서라는 한국 문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恨)의 정서라는 한국 문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을 통해 한(恨)의 정서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작품은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화자가 느끼는 삶의 무상감과 비애를 ‘귀촉도 울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 | |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 | | |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 | | |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감상한다. | | | | | |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卒本夫餘)다. (중략) 시조 동명성제(東明聖帝)는 성이 고씨(高氏)이고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 가 살았는데, 부루가 죽자 금와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금와는 그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p> <p>㉠ “저는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熊神山) 아래 압록강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통(私通)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드디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p> <p>금와는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몸을) 피하자 햇빛이 또 따라와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 쯤 되었다. 왕이 이것을 개, 돼지에게 던져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그 알을 피해 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나 짐승이 알을 덮어 주었다. 왕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화에게 돌려주었다. ㉡ 유화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 따뜻한 곳에 두자 어린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p> <p>㉢ 나이 겨우 일곱에 용모와 재력이 비범했으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백 번 쏘아 백 번 맞추었다. 나라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작자 미상, 「동명왕 신화」</p> </div> <p>● ㉠~㉢을 건국 신화의 특성 ㉠~㉢ 중 해당하는 내용과 연결하십시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1) ㉠</td> <td style="width: 50%;">▪ ㉠ 초월적 능력</td> </tr> <tr> <td>(2) ㉡</td> <td>▪ ㉡ 신성한 혈통</td> </tr> <tr> <td>(3) ㉢</td> <td>▪ ㉢ 신이한 출생</td> </tr> </table> | (1) ㉠ | ▪ ㉠ 초월적 능력 | (2) ㉡ | ▪ ㉡ 신성한 혈통 | (3) ㉢ | ▪ ㉢ 신이한 출생 |
| (1) ㉠ | ▪ ㉠ 초월적 능력 | | | | | | |
| (2) ㉡ | ▪ ㉡ 신성한 혈통 | | | | | | |
| (3) ㉢ | ▪ ㉢ 신이한 출생 | | | | | | |



| <p>예시 답안</p> | <p>(1) ㉠ - ㉢ (2) ㉡ - ㉣ (3) ㉢ - ㉠</p> | | |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35 537 613 587">내용</th> <th data-bbox="618 537 768 587">성취 여부</th> <th data-bbox="773 537 1396 587">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5 594 613 732" rowspan="2">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td> <td data-bbox="618 594 768 656">도달</td> <td data-bbox="773 594 1396 656">글에 드러난 건국 신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618 663 768 732">미도달</td> <td data-bbox="773 663 1396 732">글에 드러난 건국 신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 | 도달 | 글에 드러난 건국 신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건국 신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
|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 | 도달 | 글에 드러난 건국 신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 |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건국 신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신화의 내용을 통해 건국 신화의 신성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제시문 이외의 건국 신화를 추가로 제공하여 건국 신화의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해 보도록 지도할 수 있다. | |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A]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p> <p>날리는 엇디 살라 헝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p> <p>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헝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p> <p>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p> <p style="text-align: right;">- 작자 미상, 「가시리」</p> <p>* 선헝면: 서운하면, 마음에 거슬리면, 내키지 않으면.</p> </div> <p>◎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선생님과 나눈 대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선생님: 고려 가요는 대개 오랜 시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노래 중 일부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으며 이뤄졌어요. 고려 가요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p> <p>학생: 고려 가요가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라서 그런지 '가시리'처럼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p> </div> |



| | <p>과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p> <p>선생님: 맞아요. 또한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려 가요는 주로 ㉠ □음보로 되어 있고,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가 많아요. [A] 부분 역시 고려 가요의 특징적인 점으로 볼 수 있지요. [A]가 작품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볼까요?</p> <p>학생: [A]는 ㉡ □□□(으)로 연이 바뀌는 것을 알려 주고, 흥을 돋우고 있어요.</p> <p>㉠: _____</p> <p>㉡: _____</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 3, ㉡: 후렴구/여음구</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성취 여부</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td> <td>도달</td> <td>글에 드러난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td> </tr> <tr> <td>미도달</td> <td>글에 드러난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 | 도달 | 글에 드러난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 | 도달 | 글에 드러난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후렴구(여음구)의 특징을 설명하며 민요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면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 | | | | | |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 | | | | | | |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④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갈래별 전개와 특성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 | | | | | | |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며 감상한다. | | | | | | | | | |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껴리라 - 황진이</p> <p>(나)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알미오라 뛰온 님 오며는 꼬리를 뒹뒹 치며 뛰락 나리 뛰락 반겨서 내닷고 고온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뜨르락 나으락 캡캡 즈져서 도라가게 한다 선뱀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 작자 미상</p> </div> <p>●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 하시오.</p> <p>(1) (가)는 3장 4음보 형식의 평시조이다. ()</p> <p>(2) (나)는 종장의 첫 어절이 격식에서 벗어난 사설시조이다. ()</p> <p>(3) (가)와 (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조이다. ()</p> | | | | | | | | | | |
| 예시 답안 | <p>(1) ○ (2) × (3) ○</p> | | | | | | | | | | |
| 채점 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내용</th> <th style="width: 20%;">성취 여부</th> <th style="width: 50%;">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td> <td>도달</td> <td>글에 드러난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td> </tr> <tr> <td>미도달</td> <td>글에 드러난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 | 도달 | 글에 드러난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
|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 | 도달 | 글에 드러난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 |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 | | | | | |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대략적인 시조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하면 차라리 병법을 외워, 대장군의 입장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과 서로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로서 흔쾌히 할 일이다. 나는 어찌하여 한 몸이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건만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p> <p>“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자지 아니 하느냐?”</p> <p>길동이 공경하며 대답했다.</p> <p>“소인이 마침 달빛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중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만,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으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p> <p>공이 그 말뜻을 짐작했지만, 짐짓 책망하여 말했다.</p> <p>“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p> <p>길동이 거듭 절하고 말씀드렸다.</p> <p>“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도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가 되었으니, 아버님이 낳으시고 어머님이 기르신 은혜가 깊은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p> <p>길동이 눈물을 흘려 적삼을 적셨다. 공이 다 듣고 나서 비록 길동이 불쌍하지만, 그 뜻을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해질 것을 염려하여 크게 꾸짖었다.</p> <p style="text-align: right;">- 허균, 「홍길동전」</p> </div> <p>●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선생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적서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축첩 제도가 있어, 정실부인에게서 난 자식인 적자와 정실부인이 아닌 여자에게서 낳은 서자를 차별하였습니다. 서자인 경우 능력이 있어도 높은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등 사회적 제약이 따릅니다. 작품에서 홍길동은 아버지께 자</p> </div> |



| | <p>신을 ‘소자*’가 아닌 ‘소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홍길동이 적자인지 서자인지 알 수 있어요.</p> <p>학생: 홍길동은 자신을 ‘소인’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요. 열심히 노력해도 □□라서 출세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처지가 가여워요.</p> <p>* 소자: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말. * 소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표현한 말.</p> | | | | | | | | |
|----------------------|--|------------------------------------|-------|----|---------------|----|------------------------------------|-----|-----------------------------------|
| 예시 답안 | 서자 | | | | | | | | |
| 채점 기준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07 856 586 913">내용</th> <th data-bbox="586 856 732 913">성취 여부</th> <th data-bbox="732 856 1360 913">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7 925 586 1063" rowspan="2">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td> <td data-bbox="586 925 732 994">도달</td> <td data-bbox="732 925 1360 994">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586 994 732 1063">미도달</td> <td data-bbox="732 994 1360 1063">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미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지 못한다. | | | | | | |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파악할 경우 그 당시에 사용하였던 어휘나 표현 등에 주목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작품에 반영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여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최 씨의 친정은 노들[㉠]이라. 그 동리 풍속이 자래로 제일 숭상하는 것은, 존대하여 말하자면 만신[㉡]이요, 마구 말하자면 무당[㉢]이라 하는, 남의 집 망해주며, 날불한당질 하는 것들을 남자들은 누이님, 아주머니, 여인들은 형님, 어머니 하여가며 개화 전 시대에 칙사 대접하듯 하여, 봄가을이면 의례히 찰떡 치고 메떡 치고 쇠머리, 북어쾌를 월수, 일수 얻어서라도 기어이 장만하여 철무리[㉣] 큰굿을 하여야 세상일이 다 잘될 줄 아는 동리니, 최 씨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뿐이러니, 시집을 와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어디가 뜨끔만 하면 무꾸리[㉤] 짚이요, 남편이 이틀만 아니 들어와 자도 살풀이하기라. 어디 새로 난 무당이 있다든지, 신통한 점쟁이가 있다면 남편 모르게 가도 보고 청해다도 보아, 노구메[㉥]를 올리라든가 기도를 하라든가, 무당의 입이나 점쟁이 입에서 뚝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행을 하니, 이는 최 씨 부인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위하여 그리하는 바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사람의 일 동일정[㉦]으로 죽고 사는 일까지라도 귀신의 농락으로만, 물 부어 썰 틈 없이 꼭 믿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는 것이러라.</p> <p style="text-align: right;">- 이해조, 「구마검(驅魔劍)」</p> <p>* 노들 : 노량진. * 철무리 : 철맞이 굿. 집안의 번영과 지손의 창성을 비는 재수굿의 일종. * 무꾸리 :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길흉을 점치는 일. * 노구메 : 신령에게 제사하기 위해 노구술에 지은 메밥. * 일동일정(一動一靜) : 하나하나의 동정.</p> </div> <p>●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다. ㉧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선생님 : ‘구마검’은 미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한 신소설입니다. 구습을 타파하고 개화사상을 고취하는 신소설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데, 여기서 ‘구마검(驅摩劍)’은 마귀를 쫓아내는 데 쓰는 칼이라는 뜻입니다.</p> <p>학생 : 윗글에서 ‘최 씨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뿐이러니’라는 표현이 있는</p> </div> |



| | <p>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 □□을/를 불러 큰갓을 하는 모습에서 무속 숭배가 널리 퍼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p> <p>㉠: _____</p> | | | | | | | | |
|----------------------------|--|-------------------------------------|-------|----|------------------|----|-------------------------------------|-----|-------------------------------------|
| 예시 답안 | 무당(만신) | | | | | | | | |
| 채점 기준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07 702 610 753">내용</th> <th data-bbox="610 702 792 753">성취 여부</th> <th data-bbox="792 702 1360 753">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7 753 610 936" rowspan="2">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td> <td data-bbox="610 753 792 844">도달</td> <td data-bbox="792 753 1360 844">인물의 행위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610 844 792 936">미도달</td> <td data-bbox="792 844 1360 936">인물의 행위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시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인물의 행위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미도달 | 인물의 행위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시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인물의 행위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인물의 행위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시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 | | | | | |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안에서 인물의 행동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통용되는 행위이다. 시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행위 및 주변 사물이나 인물을 파악함으로써 학습자가 당시의 시대상에 대한 이해가 용이해지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냘프기만 해 ㉣ 연잎은 너무 괘시를 하고 ㉤ 행채*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p> <p style="margin-left: 20px;">[A] 「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어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p> <p style="text-align: right;">- 정약용, 「고시(古詩) 7」</p> </div> <p>* 행채: 연못이나 늪에 나는 마름과의 한해살이풀.</p> <p>● (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정약용은 지배층인 양반의 신분임에도 당대 피지배층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관리들의 착취와 횡포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관리들이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관리들이 본분을 잊고 힘없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여러 글을 통해 비판하였고, 관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였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의지할 곳 없는 힘없는 백성들의 삶을 표현한 것 같아. ② ㉡: 지배층의 횡포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상황을 표현한 것 같아. ③ ㉢: 백성들에 대한 작가의 연민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아. ④ ㉣: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관리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 ⑤ ㉤: 관리의 본분을 다하려고 애쓰는 작가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 |



| | <p>(2) 윗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A]에 주목하여 쓰시오.</p> <p>_____</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1) ⑤ (2) 여러 사람이 어그러지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것(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 강자와 약자가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사는 것 등)</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18 748 618 805">내용</th> <th data-bbox="618 748 792 805">성취 여부</th> <th data-bbox="792 748 1377 805">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8 805 618 989" rowspan="2">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td> <td data-bbox="618 805 792 897">도달</td> <td data-bbox="792 805 1377 897">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618 897 792 989">미도달</td> <td data-bbox="792 897 1377 989">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미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지 못한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파악할 경우 그 당시에 사용하였던 어휘나 표현 등에 주목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기〉를 활용하여 작품에 반영된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여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u>짚이 올린다</u>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 <u>구경꾼이 돌아가고</u>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 <u>술을 마신다</u>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 <u>장거리로 나서면</u>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 <u>비료값도 안 나오는</u>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p> <p style="text-align: right;">- 신경림, 「농무(農舞)」</p> </div> |



| | <p>● ㉠~㉤ 중, 〈보기〉의 ㉡에 해당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1960~197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로, 도시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도시에서 일할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반면 농촌에서는 ㉡ 농사를 지어서는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의 공장이나 서비스 산업으로 유입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가속화되고 농촌은 급속도로 황폐해졌다.</p> </div> <p>① ㉠ ② ㉡ ③ ㉢ ④ ㉣ ⑤ ㉤</p> | | | | | | | | |
|----------------------------|--|--------------------------------|-------|----|------------------|----|--------------------------------|-----|-------------------------------|
| 예시 답안 | ⑤ | | | | | | | | |
| 채점 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내용</th> <th style="width: 20%;">성취 여부</th> <th style="width: 60%;">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달</td> <td>시대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도달</td> <td>시대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시대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 미도달 | 시대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시대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시대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지 못한다. | | | | | | |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서 직설적인 표현으로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경우,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가 드러난다. 학습자가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시대 상황과 사회 상황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분적으로 찾으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p>(가)</p> <p>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의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철갑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들어 보니 아치형의 각질 부분들로 나누어진,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다.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이불은 배의 높은 부위에 가까스로 걸쳐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애처로울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하릴없이 버둥거리고 있었다.</p> <p>“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p> <p>[뒷부분 줄거리] 가족을 부양하던 그레고르가 경제력을 상실하자 가족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가족들은 직업을 구하고 하숙을 하며 살아갈 길을 모색한다. 하숙을 운영하던 중, 하숙인들이 그레고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은 화를 내며 나가 버린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원망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 프란츠 카프카, 「변신」</p> <p>(나)</p> <p>그때였다. □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움직이리라고 마음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 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만져 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 석고처럼 딱딱하고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 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스위치 있는 쪽으로 가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 있는 곳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는 채 못 미쳐 이미 온몸이 굳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숫제 체념해 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하였다. 그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p> <p>다음다음 날 오후쯤 한 여인이 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 매우 놀라서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었지만, 놀란 가슴을 누르며 온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는데 틀림없이 그녀가 없는 세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긴 했지만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본 후에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안심해 버렸다.</p> <p>그러나 그녀는 곧 잃어버린 것이 없는 대신 새로운 물건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p> |



다. 그 물건은 그녀가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으므로 며칠 동안은 먼지도 털고 좀 뒤틀어진 하지만 키스도 하긴 했었다. 하지만 나중엔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렸고 싫증이 났으므로 그 물건을 다락 잡동사니 속에 처넣어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 방을 떠나 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메모지를 찢어 달필로 다음과 같이 써서 화장대 위에 놓았다.

여보, 오늘 아침 전보가 왔는데 친정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잠깐 다녀오겠어요. 당신은 피로하실 테니 제가 출장 갔다고 할 테니까 오시지 않으셔두 돼요. 밤은 부엌에 차려 놔어요.

당신의 아내가

- 최인호, 「타인의 방」

● 다음은 (나)의 □가 (가)의 **그레고르 잠자**에게 쓴 편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그레고르 잠자에게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소. 당신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 편지를 쓰요. 출장을 마치고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는데, 집에는 아내의 편지만 있고 아내는 없었소.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웃들이 벨을 누르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갈등이 있었소. 그러다 잠자기 소리가 들리다가 가구들이 흔들리더니 나도 가구와 같은 사물이 되어 버렸소.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한동안 관심을 갖다가 팽개치고 또 떠나 버렸소.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지 알지는 못하겠으나, 당신도 그렇겠지만 ㉠ □□을/를 하고, 가까운 가족에게 ㉡ □□감을 느끼게 되니 마음이 아프요.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단절된 이 상황이 불안하요.

〈보기〉

| | | | | |
|----|----|----|----|----|
| 유대 | 변신 | 소외 | 환생 | 신뢰 |
|----|----|----|----|----|

㉠: _____

㉡: _____

예시 답안

㉠: 변신, ㉡: 소외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모티프의 보편성 | 도달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공통된 모티프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
| | 미도달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공통된 모티프의 역할을 파악하지 못한다.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세계의 여러 나라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보편적인 장치로 모티프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통된 속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분적으로 찾으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p>(가)</p> <p>[앞부분 줄거리] 은행장 승진을 앞둔 톨발 헬멜과, 그의 아내 노라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린데 부인이 노라의 풍요로운 생활을 부러워하자, 노라는 결혼 초기 중병에 걸린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죽은 부친의 서명을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최근까지 빚을 갚고 있지만 그 일로 협박받고 있음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헬멜은 자신의 사회적 위신 때문에 그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심을 초사하며 노라를 질책한다. 린데 부인의 도움으로 노라가 차용증을 돌려받게 되자 헬멜은 노라의 행동을 용서하겠다고 말하지만, 노라는 헬멜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독립을 선언한다.</p> <p>노라 글썸요, 톨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군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를 않는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란 모든 일에 대하여 저는 당신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이란 제가 여태껏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법이 옳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자에게는 돌아가시게 된 친정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할 권리가 없다니 말입니다 -. 저는 그런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헨리크 입센, 「인형의 집」</p> <p>(나)</p> <p>“대체 무엇을 위해 독서하십니까?”</p> <p>남편은 대답이 궁해지자 책을 탁 덮고 일어나 탄소리를 했다.</p> <p>“애석하구나. 겨우 칠 년이러니.”</p> <p>그러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나는 다시 출유하려 하오.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고 수레별 큰택에 몸을 의탁해 있으시오. 이미 사촌 큰형님과 상의해 두었소.”</p> <p>“집을 판다면…… 아주 안 돌아오십니까?”</p> <p>“나도 모르오.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장담하기 어렵소.”</p> |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지지요.”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 하오? 우리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린단 말이오? 사람에게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하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이 여자 홀로 지켜야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걸 저버리고 절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 집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리라곤 생각지 않소.”

“인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지요? 하루 종일 무릎이 시도록 웅크리고 앉아 바느질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야 무슨 짓을 하든 서속이라도 꾸어다 조석 봉양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 술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중략)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십 년이나 기약하고 독서했지요? 당신은 대답할 수 없으시지요! 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살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때문이라고요. 난 그렇게 하고 싶고, 꼭 할 거예요…….”

- 이남희, 「허생의 처」

◎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 □□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군.

㉠: _____

| | | |
|-----------------------------|--|---|
| 예시 답안 | 여성 | |
|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 | 사회문화적 맥락의 보편성 | 기준 |
| | | 도달 |
| | | 미도달 |
| |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공통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
| |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공통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는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⑤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며 한국 문학의 대표작을 감상한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분적으로 찾으며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가)</p> <p>[앞부분 줄거리] 몬테규 가문과 캐플렛 가문은 원수지간이다. 몬테규 가문의 사람인 로미오는 초대받지도 않은 캐플렛 가문의 연회에 갔다가 줄리엣을 만난다.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만 서로가 원수의 가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p> <p>줄리엣 아 로미오,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예요? 아버지를 잊어요. 그 이름을 버려요. 그것이 싫다면 날 사랑한다고 맹세해요. 그럼 내가 캐플렛성을 버릴 거야.</p> <p>로미오 (방백) 좀 더 들어 볼까, 말을 걸어 볼까?</p> <p>줄리엣 당신 이름만이 나의 원수일 뿐, 비록 몬테규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이야. 몬테규가 뭔데? 손도 발도 팔도, 얼굴도 아니고, 사람 몸의 어떤 부분도 아니잖아. 아, 딴 이름이 왜 주어요!</p> <p style="text-align: right;">-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p> <p>(나)</p> <p>[앞부분 줄거리]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광한루에서 그녀를 타는 퇴기 월매의 딸 성춘향에게 첫눈에 반한다. 이몽룡은 자신이 부리는 방자에게 성춘향을 데려오라고 시킨다. 방자는 성춘향에게 이몽룡의 뜻을 전하고, 이몽룡과 성춘향은 서로 만나게 된다.</p> <p>“너도 귀한 딸이로다.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 보자.”</p> <p>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 고운 음성으로 여쭙오되,</p> <p>“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p> <p style="text-align: right;">- 작자 미상, 「춘향전」</p> </div> <p>● (가)와 (나)는 모두 청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가)와 (나)의 갈등 요인을 각각 쓰시오.</p> <p>(가): _____</p> <p>(나): _____</p> |



| | | | |
|----------------------------|---|-------|--|
| 예시 답안 | (가): 가문 간의 갈등 (나): 신분의 차이 | | |
|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수성 | 도달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미도달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문화적·관습적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갈등 요소가 극과 소설에서 작용하는 효과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⑥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려는 태도를 보인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짜부딘, 사장이 너무 불쌍해.”</p> <p>“난 사장 죽도록 미웠어. 간쭈, 너 때문에 오늘 일 다 망친 거야.”</p> <p>“난 사장님, 돈 쥐 소리 못 하겠어. 사장 돈 없어, 몸 아파, 어머니 아파, 사장 슬퍼.”</p> <p>“그래도 사장한테 말을 해야 했어.”</p> <p>“나는 사장님 돈 쥐, 소리 못 해. 왜냐, 사장 돈 없어.”</p> <p>“간쭈, 언제 떠나?”</p> <p>“모레, 오늘 밤, 내일 밤 자고 모레, 내일은 시내 가서 윤도현 음악 시디하고 고무장갑하고 소주하고 옷하고 신발하고 여러 가지를 살 거야. 난 윤도현 왕팬이야.”</p> <p>“간쭈, 넌 너희 나라 가면 뭐 할 거야?”</p> <p>“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 나라 네팔 달 볼 거야. 내가 뭐 할 건지, 달한테 물어볼 거야. 짜부딘은?”</p> <p>“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았어. 동생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형이랑 조카 많이 슬퍼. 부모님 돌아가셨어. 우리 나라, 방글라데시 가도 나는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난 갈 수 없어. 형 다쳤어. 손가락 잘렸어. 조카 살려야 해.”</p> <p>“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 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p> <p>간쭈가 다시 노래한다.</p> <p>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오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 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p> <p>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따라 했다.</p> <p>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p> <p style="text-align: right;">- 공선옥, 「명랑한 밤길」</p> </div> |



| | <p>◎ (1) '간쭈'와 '싸부단'이 처한 상황의 공통점에 대해 서술하시오.</p> <p>_____</p> <p>(2) 자신이 '간쭈'와 '싸부단'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태도를 서술하시오.</p> <p>_____</p> | | | | | | | | |
|----------------------------|--|--------------------------------------|-------|----|--------------|----|--------------------------------------|-----|--------------------------------------|
| 예시 답안 | <p>(1) 그들은 한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로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p> <p>(2)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생각을 도덕적으로 벗어나지 않게 서술한 경우 인정)</p> | | | | | | | | |
| 채점 기준 |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성취 여부</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td> <td>도달</td> <td>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td> </tr> <tr> <td>미도달</td> <td>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미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 | | | | | | | |
| 출제 의도/ 문학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가치관을 파악하고,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학습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역 | 문학 | | | | | | | | |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 | | | | | | |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⑥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 | | | | | | |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려는 태도를 보인다. | | | | | | | | | |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센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섰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센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p> <p>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빠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p> <p>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 이규보, 「이옥설(理屋設)」</p> <p>* 행랑채 : 문간채. 대문간 곁에 있는 집채. * 퇴락 :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짐.</p> </div> <p>● (1) 다음은 윗글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1문단] 사실</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2문단] 깨달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3문단] 적용</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행랑채를 ㉠□□한 경험</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됨.</td> <t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부패한 ㉡□□을/를 개혁해야 함.</td> </tr> </table> <p>㉠ : _____ ㉡ : _____</p> | [1문단] 사실 | ⇒ | [2문단] 깨달음 | ⇒ | [3문단] 적용 | 행랑채를 ㉠□□한 경험 | |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됨. | | 부패한 ㉡□□을/를 개혁해야 함. |
| [1문단] 사실 | ⇒ | [2문단] 깨달음 | ⇒ | [3문단] 적용 | | | | | | | |
| 행랑채를 ㉠□□한 경험 | |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됨. | | 부패한 ㉡□□을/를 개혁해야 함. | | | | | | | |



| | <p>(2) 윗글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친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지. ② 자신의 단점이나 취약점을 알면서도 고치기를 망설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지. ③ 가벼운 증상도 지나치지 말고 그때그때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지. ④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 것이 진로 탐색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지. ⑤ 학습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지.</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1) ㉠: 수리, ㉡: 정치 / 나라 (2) ④</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12 950 607 996">내용</th> <th data-bbox="607 950 776 996">성취 여부</th> <th data-bbox="776 950 1349 996">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2 996 607 1125" rowspan="2">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td> <td data-bbox="607 996 776 1051">도달</td> <td data-bbox="776 996 1349 1051">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의 생활화를 경험한다.</td> </tr> <tr> <td data-bbox="607 1051 776 1125">미도달</td> <td data-bbox="776 1051 1349 1125">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의 생활화를 경험하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의 생활화를 경험한다. | 미도달 | 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의 생활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의 생활화를 경험한다. | | | | | | | |
| | 미도달 | 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의 생활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학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학 활동을 지속적으로 생활화하도록 작품 감상을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⑥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려는 태도를 보인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지난 경인년(1470)에 큰 가뭄이 들었다. 정월부터 비가 오지 않더니, 가을 칠월까지 가뭄이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땅이 메말라서 봄에는 쟁기질을 하지 못했고 여름이 되어서도 김매 것이 없었다. 온 들관의 풀들은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들도 하나같이 모두 시들었다.</p> <p>이때 부지런한 농부는</p> <p>“곡식들이 김을 매 주어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 주지 않아도 역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죽어 가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살리려고 애를 써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비가 오면 전혀 보람 없는 일이 되지는 않으리라.”</p> <p>하고, 찌찌 갈라진 논바닥에서 김매기를 멈추지 않고 다 마르고 시들어 빠진 곡식 싹들을 쉬지 않고 돌보았다. 일 년 내내 잠시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 곡식이 완전히 말라 죽기 전까지는 농사일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p> <p>한편 게으른 농부는</p> <p>“곡식들이 김을 매 주어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 주지 않아도 역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질없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고생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버려 두고 편히 지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약 비가 전혀 오지 않으면 모두가 헛고생이 될 테니까.”</p> <p>하였다. 그래서 일하는 농부나 들밥을 내가는 아낙들을 끊임없이 비웃어 대며, 그해가 다 가도록 농사일을 팽개치고 들어앉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p> <p>가을걷이를 할 무렵에 내가 과주(坡州) 들녘에 나가 논밭을 보니, 한쪽은 잡초만 무성하고 드문드문 있는 곡식들도 모두가 죽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쪽은 농사가 제대로 되어 잘 익은 이삭들이 논밭 가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마을 노인에게 물었더니, 농사를 망친 곳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며 농사일을 하지 않은 농부의 것이었고, 곡식이 잘 영근 곳은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농사일에 애쓴 농부의 것이었다.</p> <p>한때의 편안함을 찾다가 일 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고통을 참아 내어 한 해를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아! 열심히 일을 하면 뜻한 바를 이루고, 편안하게 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농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p> </div> |



오늘날 시서(詩書)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선비들이 젊었을 적에는 학문에 뜻을 두고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책을 읽고 쉬지 않고 글을 짓는다. 그렇게 닦은 재주를 가지고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솜씨를 겨루는데, 시험에 한번 떨어지면 실망을 하고 두 번 떨어지면 번민하고 세 번 떨어지면 망연자실해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공명(功名)을 이루는 것은 분수가 있는 것이어서 학문을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며, 부귀를 누리는 것도 천명이 있는 것이어서 학문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하던 학문을 팽개쳐 버리고 지금까지 해 놓았던 공부도 모두 포기한다. 어떤 사람은 절반쯤 학문이 이루어졌는데도 내던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문턱까지 갔다가 주저앉아 버린다. 마치 ㉠아홉 길 높은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 산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게으름을 피우며 농사일을 제쳐 놓은 농부와 같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 성현, 「타농설(惰農說)」

* 삼태기: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 (1)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큰 가뭄에 대처하는 태도가 농부마다 다를 수 있다.
 - ② 나이에 따라 학문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
 - ③ 고통을 참아 내고 열심히 하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 ④ 학문하는 중에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아야 한다.
 - ⑤ 과거 시험에 떨어져도 학문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2) ㉠에 해당하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쓰시오.

| 예시 답안 | (1) ② (2) 오늘 아침 5km 조깅하기로 했는데 4km까지 달리다가 지쳐서 포기해 버렸다. | | | | | | | | | |
|----------------------------|--|--------------------------------------|-------|----|--------------|----|--------------------------------------|-----|--------------------------------------|--|
| 채점 기준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내용</th> <th style="width: 15%;">성취 여부</th> <th style="width: 65%;">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달</td> <td>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도달</td> <td>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미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 |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 | | | | | | |
| | 미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 | | | | | | | |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 수필을 읽고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 작품을 통해 알게 된 작가의 가치관과 자신의 일상생활의 경험과 생각을 비교하여 성찰하는 태도를 기르게 한다. | | | | | | | | | |



| 영역 | 문학 | | | | | | |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 | | | |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㉔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 | | | |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려는 태도를 보인다. | | | | | | |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모진 소리를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모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진다. 온몸이 쿡쿡 아파 온다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찢 금 가게 했을 모진 소리</p> <p>☐와 헤어져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를 생각하면 모진 소리, 늑골에 정을 친다 찢어엥 세상에 금이 간다.</p> <p style="text-align: right;">- 황인숙, 「모진 소리」</p> </div> <p>◎ (1) 다음은 윗글의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㉑, ㉒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padding: 5px;">1연</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화자 </td> </tr> </table>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td> <td style="width: 40%;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padding: 5px;">2연</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이/가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㉒ • 모진 소리로 인해 금이 가는 세상 </td> </tr> </table> </td> </tr> </table>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padding: 5px;">1연</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화자 </td> </tr> </table> | 1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화자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padding: 5px;">2연</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이/가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㉒ • 모진 소리로 인해 금이 가는 세상 </td> </tr> </table> | 2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이/가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㉒ • 모진 소리로 인해 금이 가는 세상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padding: 5px;">1연</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화자 </td> </tr> </table> | 1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화자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padding: 5px;">2연</th> </tr>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이/가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㉒ • 모진 소리로 인해 금이 가는 세상 </td> </tr> </table> | 2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이/가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㉒ • 모진 소리로 인해 금이 가는 세상 | | |
| 1연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화자 | | | | | | | | |
| 2연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㉑ 이/가 하는 모진 소리를 듣는 ㉒ • 모진 소리로 인해 금이 가는 세상 | | | | | | | | |



| | <p>㉠: _____</p> <p>㉡: _____</p> <p>(2) 자신이 윗글의 <u>나라</u>면 <u>누군가</u>에게 해 주고 싶은 사과의 말을 쓰시오.</p> <p>_____</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1) ㉠: 화자(나), ㉡: 타인(누군가)</p> <p>(2)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상처 받고 힘들었지? 미안해. 너에게 모진 소리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도 많이 아팠어.</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성취 여부</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td> <td>도달</td> <td>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다.</td> </tr> <tr> <td>미도달</td> <td>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하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다. | 미도달 |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하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하지 못한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상 전개 과정을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비를 파악한 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2번 문항에서는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충분히 파악한 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⑥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문학 활동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은 문학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지수: 오늘 문학 수업 중 선생님께서 최인훈의 ‘광장’을 읽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공유해 보라고 하셨잖아.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도 문학 활동 경험을 공유해 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p> <p>민우: 그럼 최인훈의 ‘광장’을 읽었으니까 ‘광장’과 관련하여 토론할 거리를 찾아서 함께 토론해 보는 건 어때?</p> <p>민지: 좋은 생각이야. 나는 학교 누리집 학급 공부방에 ‘광장’에 대한 감상문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작년에 학급 활동으로 감상문 올리기를 진행했었는데, 친구들이 나의 감상문을 읽고 감상문에 대한 댓글을 달아 주니까 친구들과 나의 생각의 차이점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거든.</p> <p>지수: 얼마 전 신문 광고에서 봤는데, ‘광장 함께 읽기’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더라. 이 강연회에 참여해서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강연자에게 질문하고,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보는 것은 어때?</p> <p>민우: 오, 좋은 의견이야. 강연회에 참석해서 질문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은 사람들과 작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p> </div> <p>● 위 대화에 나타난 ‘문학 활동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재구성하기 ㉡ 감상문에 대한 의견 주고받기 ㉢ 작품과 관련한 토론 진행하기 ㉣ 작품 관련 강연회에 참여하여 소통하기 ㉤ 작품 다시 읽어보며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div> |



| | | | |
|-------------------------------------|--|-------|------------------------------------|
| 예시 답안 | ㉠, ㉡, ㉢ | | |
|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문학 활동 경험 공유하기 | 도달 | 문학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을 2개 이상 찾을 수 있다. |
| | | 미도달 | 문학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을 1개 이하로 찾을 수 있다.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닌 습관과 태도의 문제이기에, 지속적으로 문학 활동 경험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도한다. •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방법은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 |



| 영역 | 문학 | | |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⑥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 |
| 수행 활동/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문학 활동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 | |
| 예시 평가 문항 |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돌아보고 평가해 봅시다. | | | |
| | 점검 내용 | 1 | 2 | 3 |
| | (1) 문학 작품 감상과 문학 작품 창작 등의 문학 활동을 경험하였는가? | | | |
| | (2) 문학 작품을 읽고 궁금한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했는가? | | | |
| | (3) 문학 작품을 읽은 후, 자신이 읽은 작품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였는가? | | | |
| | (4) 문학 작품을 읽고 작품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토의 또는 토론 활동을 하였는가? | | | |
| | (5) 문학 활동 경험 공유를 통해,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는가? | | | |
| (1 : 그렇다, 2 : 보통이다, 3 : 그렇지 않다.) | | | | |
| 예시 답안 | 생략 | | | |
| 채점 기준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문학 활동 경험 공유하기 | 도달 | 문학 활동 경험과 관련한 점검표의 항목 중 '그렇지 않다(3)'가 2개 이하이다. | |
| 미도달 | | 문학 활동 경험과 관련한 점검표의 항목 중 '그렇지 않다(3)'가 3개 이상이다. | | |
| 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도와 관련된 항목을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지속적 관찰을 통해서 도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 부족한 태도에 대해서는 피드백과 다른 학습 활동을 통해 적절한 태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타인과의 문학 활동 경험 공유는 문학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영역 | 문학 |
|------------------|---|
| 일반적 특성 |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하나의 맥락과 연결하여 수용하고 생산한다. 한국 문학이 공동체의 삶과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 ⑥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
| 수행 활동/ 판단 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 예시 평가 문항 | <p>※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 도종환, 「담쟁이」</p> </div> <p>◎ (1) 〈보기〉는 윗글에 대한 작가의 말이다.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구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살면서 수많은 벽을 만났습니다. 어떤 벽도 나보다 강하지 않은 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벽에서 살게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벽에서 시작하는 담쟁이. 원망만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를 찾아가 손을 잡고 <u>연대하고 협력하여</u> 마침내 절망적인 환경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꾸는 담쟁이처럼 살기로 했습니다.</p> </div> |



| | <p>(2) <보기>는 윗글의 시구를 활용하여 절망에 빠진 친구에게 보내는 휴대 전화 메시지이다. ㉠~㉡ 중, 시구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 style="text-align: center;">— < 보기 >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벽'을 느낄 때가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 일단 '말없이 그 벽을' 오르기를 시작해 보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 절대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뺨어 나가 보는 거야.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야. 그래도 멈추지 말고 서로를 이끌며 함께 끝까지 오른다면 ㉤ '결국 그 벽을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p> </div> <p>① ㉠ ② ㉡ ③ ㉢ ④ ㉣ ⑤ ㉤</p> | | | | | | | | |
|-------------------------------------|---|-----------------------------------|-------|----|---------------|----|-----------------------------------|-----|-----------------------------|
| <p>예시 답안</p> | <p>(1)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 끌고 (2) ④</p> | | | | | | | | |
| <p>채점 기준</p>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내용</th> <th style="width: 20%;">성취 여부</th> <th style="width: 60%;">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문학 활동 경험 공유하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도달</td> <td>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도달</td> <td>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지 못한다.</td> </tr> </tbody> </table>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문학 활동 경험 공유하기 | 도달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 미도달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지 못한다.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 | |
| 문학 활동 경험 공유하기 | 도달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 | | | | | | |
| | 미도달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지 못한다. | | | | | | | |
| <p>출제 의도/ 문항 활용 및 지도 방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며,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공동체 구성원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상호 존중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문학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 | | | | | |

IV

부록

1. <문학> 예시 평가 문항 모음
2. <문학> 예시 평가 문항 정답 및 채점 기준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1. 〈문학〉 예시 평가 문항 모음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중략)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날 안에 무슨 뽀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걸 우리 집이야.”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났으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네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다.”
 영호가 말했다.
 “그만 뒤.”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계고장 :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 입주권 : 새로 지은 아파트 따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1. <보기>는 윗글의 창작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우리**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1960년대 말부터 급속한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생긴 도시 빈민가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무허가 집들을 강제 철거하고 이주시켰다. 철거민들은 공중화장실조차 없는 언덕배기에 천막이나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며, 철거민의 입주권은 부동산 투기로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거래되었다.

- ① 철거민의 입주권을 받지 못했다.
- ② 철거민의 입주권을 팔 수 없었다.
- ③ 새 아파트로 입주할 돈이 없었다.
- ④ 깨끗한 새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 ⑤ 깨끗해진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2.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골라 쓰시오.

< 보기 >

‘연탄재’는 초라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상징한다. 화자는 ‘연탄재’를 통해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의 태도를 ㉠(긍정 / 부정)하고 있다.

㉠ : _____



[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단다. 옛날 어떤 집에서 아들을 얻어 집안이 온통 축제 판이었단다. 만 한 달이 되어, 잔칫날 손님들에게 아이를 보였겠지? 물론 덕담을 들으려고 말이야. 그날 온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애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지.

— 우와, 이 아이는 크면 부자가 되겠는데요.
 부모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고마워했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말했단다.
 — 이 녀석, 크면 높은 벼슬하겠습니다.
 주인도 답례로 그에게 덕담을 해 주었지.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단다.
 — 이 아이는 분명 죽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죽도록 때렸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자가 되거나 벼슬을 할 거라는 건 거짓말일 수도 있지. 그런데 거짓말은 좋은 보답을 얻었고, 진실은 죽도록 얻어맞은 셈이지. 너는……?”

“선생님, 저는 거짓말도 하기 싫고, 언어맞기도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하지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려무나. 우와—! 이 아이는 정말! 이걸 보세요! 얼마나……. 어이구! 하하! 허허허 헛, 허허허!”

- 루쉰, 「헛, 허허허허!」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감상문의 일부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대우를 받지만, □□을/를 말하는 자는 죽도록 얻어맞는다. 거짓을 말하는는 쉬우나 □□을/를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거짓말도 하기 싫고, 언어맞기도 싫다고 말하는 ‘나’에게 선생님은 ‘헛, 허허허허!’ 하고 웃으라고 대답한다. 작가는 선생님의 마지막 대답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에 대한 풍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다.

[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캱캱 여우가 우는 산(山)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甘露)*같이 단 썸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산(山) 너머는 평안도(平安道) 땅도 보인다는 이 산(山)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 백석, 「백화(白樺)*」



- * 감로(甘露): 달콤한 액즙.
- * 박우물: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는 얇은 우물.
- * 백화(白樺): 흰 자작나무.

4. 윗글을 감상하며 얻을 수 있는 미적 즐거움이 아닌 것은?

- ① '산골집'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한다.
- ② '캉캉' 우는 여우의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 ③ '장작'의 축축한 감촉을 떠올리게 한다.
- ④ '샘'의 달콤한 물맛을 상상하게 한다.
- ⑤ '자작나무다'의 반복이 운율감을 느끼게 한다.

[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山
 절망의산,
 대가리를밀어버
 린, 민둥산, 벌거숭이산
 분노의산, 사랑의산, 침묵의
 산, 함성의산, 증인의산, 죽음의산,
 부활의산, 영생하는산, 생의산, 희생의
 산, 숨가쁜산, 치밀어오르는산, 갈망하는
 산, 꿈꾸는산, 꿈의산, 그러나 현실의산, 피의산,
 피투성이산, 종교적인산, 아이너무나너무나 폭발적인
 산, 힘든산, 힘센산, 일어나는산, 눈뜨는산, 눈뜨는산, 새벽
 의산, 희망의산, 모두모두절정을이루는평등의산, 평등한산, 대
 지의산, 우리를감싸주는, 격하게, 넉넉하게, 우리를감싸주는어머니

- 황지우, 「무등(無等)」

5. <보기>는 윗글을 읽은 후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보기> —————

- 지수:** 이 작품의 제목인 「무등」은 광주광역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산의 이름이라던데, 알고 있었어?
- 민지:** 아, 그래서 '山(산)'으로 시작해서 계속 '……산'이라는 구절이 반복되는구나.
- 지수:** 맞아. 이 작품은 무등산이라는 산이 지닌 의미를 작품의 내용으로 담기 위해 형식도 내용과 어울리게 되어 있잖아.
- 민지:** 오, 듣고 보니 그렇네. 아래로 내려올수록 행의 길이가 길어지도록 배열하여 ㉠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네.

㉠ : _____



[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리]

그때는 어느 땐고 팔월 추석 가절이라. 다른 집에서는 술을 거른다, 떡을 친다, 지지고 볶느라고 피 피 이놈의 냄새가 코 난간을 무너내는데, 홍보집은 냉랭하여 바람이나 세차게 부는구나. 자식들은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홍보는 가슴이 미어질 듯, 마음 달랠 길 없어 어디론지 나가버리고, 홍보 마누라는 졸고 앉았다 가 설움이 복받치어 신세 한탄 울음을 우는데, 이것이 가난타령이 되었겠다.

[㉠]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너르* 가난이야. 복이라 하는 것은 어이하면 잘 타는고. 복두칠성님이 복 [A] 마련을 하셨는가. 삼신제왕님이 이 세상에 내보낼 때 목숨과 복을 점지하느냐.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부귀영화로 잘 사는데, 이년의 팔자는 어이하야 이 지경이 웬일이냐. 뭉쓸 년의 팔자로다.”

- 작자 미상, 「홍보가」

* 원수너르: 원수 놈의.

6. 〈보기〉는 윗글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보기〉

선생님: 판소리 사설은 이야기 부분인 ‘아니리’와 노래 부분인 ‘창’,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노래인 ‘창’은 내용 전개나 인물들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 장단으로 불러요. 진양조는 가장 느린 장단으로 슬픈 느낌을 주고, 중모리는 보통 빠르기의 장단으로 안정감을 주며, 중중모리는 조금 빠른 장단으로 흥취를 돋우고 우아한 맛이 있어요. 자진모리는 빠른 장단으로 명랑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고, 휘모리는 아주 빠른 장단으로 흥분과 긴박감을 주어요. 그럼, 윗글의 [A] 부분은 어떤 장단으로 부르면 좋을까요?

학생: 홍보 마누라의 신세 한탄이 주된 내용으로 슬픈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 장단으로 부르면 좋겠어요.

㉠: _____

[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뫼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덮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푼 실을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 베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짠 베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중략)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뭇돌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 문병란, 「직녀에게」

- * 오작교: 칠월칠석날 저녁에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 위해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에 놓는 다리.
 * 노뭇돌: 말에 오르거나 내릴 때 발돋움에 쓰려고 대문 앞에 놓은 큰 돌.

7. 다음은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맞으면 ○, 틀리면 × 하시오.

- (1) '견우직녀' 설화 모티프를 활용하여 이별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2)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3) 동일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을 강조하고 있다. ()

[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 육첩방: 일본식 다다미 6장을 깔아 놓은 방.
* 침전(沈澱): 의식이나 사고, 행동 등이 내부에 가라앉음.

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는 작가가 일본에서 유학을 할 때 쓴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 지식인의 현실 인식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윤동주 시인을 잘 알고 있는 국문학자 정병욱 교수는 “윤동주 시인은 대인 관계에서 모가 나는 일이 없었기에, 누구도 그를 비난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너그러웠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하여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시인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 ① ‘육첩방’과 ‘남의 나라’를 통해 작가가 일본에 있을 때 쓴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대학 노트’와 ‘강의 들으러 간다’를 통해 작가가 유학 중에 쓴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현실 인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부끄러운 일이다’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를 통해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에 너그러웠던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끼와 까투리가 들관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주우러 들어가다가, 붉은 콩 한 알이 덩그러렇게 놓여 있는 것을 장끼가 먼저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말하기를,



“어허, 그 콩 먹음직스럽구나!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마다하랴? 내 복이니 어디 먹어 보자.”
 옆에서 이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까투리가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아직 그 콩 먹지 마오. 눈 위에 사람 자취가 수상하오. 자세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쓴
 흔적이 심히 괴이하니, 제발 덕분 그 콩일랑 먹지 마오.”
 “자네 말은 미련하기 그지없네. 이때를 말하자면 동지선달 눈 덮인 겨울이라. 첩첩이 쌓인 눈이 곳곳에
 덮여 있어 여러 산에 나는 새 그쳐 있고 땅에 사람의 발길이 끊겼는데 사람의 자취가 있을까 보냐?”
 까투리도 지지 않고 입을 연다.
 “사리는 그럴 듯하오마는 지난밤 꿈이 크게 불길하니 스스로 잘 생각하여 행동하소.”

(중략)

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니 까투리는 할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자 장끼란 놈 얼굴 뽕지개를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갯짓하며 조춤조춤 콩을 먹으러 들어가는구나. 반달 같은 헛부리로 콩을 짹 짹 씹으니 두 고
 패 둥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가 마치 마차를 맞치는 듯 와지끈 딱딱 푸드드득 푸드드득 변통 없이 치
 었구나.

이 꼴을 본 까투리가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하여 땅을 치며 말하기를,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집안을 망치고 안 들어도 망신하네.”
 하면서, 위아래 넓은 자갈밭에 자락 머리 풀어 헤치고 당글당글 텅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나 앉아 잔디 풀
 을 쥐어뜯어 가며 애통해 하고, 두 발을 땅땅 구르면서 성을 무너뜨릴 듯이 대단히 절통해 한다.
 - 작자 미상, 「장끼전」

9.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과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시오.

— <보기> —

선생님: 조선 시대에는 봉건적인 사상과 제도를 바탕으로 남녀의 역할이 뚜렷이 구별되었고, 여성의 사회
 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기존 질서가 흔들림에 따라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받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여성상이 대두하였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장끼전’
 역시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1) 장끼 ▪ ▪ 현명하고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
 (2) 까투리 ▪ ▪ 무능하고 가부장적인 남성의 모습

[1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툇뿔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땀처럼 맺은 줄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서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찌룩찌룩 눈꽃은 쌓이고 (하략)

- 광재구, 「사평역에서」

(나)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삼십 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여덟 시 십오 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뭐 벌썩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서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외눈박이 수은등이 경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송이눈이다.

(중략)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 톱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두 개를 맞붙여서 세워 놓은 듯한 꼬락서니로, 그나마 녹이 잔뜩 슬어 있어서 그간 겨울을 몇 차례나 맞고 보냈는지 어림잡기조차 힘들다. 난로의 허리께에 톱날 모양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 새로는 톱밥이 타들어 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비치고 있다.

- 임철우, 「사평역」

1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평역'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② 활기차고 희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난로', '눈'이라는 소재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다.



[1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깎,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중략)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씨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샷*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샷: 샷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 권을 붙이었다: 주인집에 세를 얻어 살았다.

* 나뭇손: 저녁 무렵.

* 샷: '옆'의 방언.

(나)

[앞부분 줄거리] 이훈의 상처를 지닌 시인 두현은 오 년 만에 아내와 교체하던 때 자주 들르던 교외의 한 찻집을 찾아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에이, 시시해. 그럼 전 부인은 진짜 유학을 갔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으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요즘도 아이 꿈을 꾸세요?

아뇨. 요즘은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는 편이죠.

나무요?

나무입니다. 아주 험걸차고 씩씩한 녀석이죠. 바로 수갈매나무입니다. 갈매나무가 암수딴그루 나무인 건 아시죠?

암수딴그루라뇨?



왜, 은행나무처럼 암수가 따로 있다 이겁니다. 제가 여태껏 보아 온 건 모두 암그루였죠. 아직 수그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죠. 아마 어느 깊은 계곡 어디에선가 뿌리를 박고 홀로 눈보라와 찬비와 거친 바람을 맞으며 추운 계절을 꿋꿋이 견디며 힘차게 수액을 높은 우듬지* 위로 뽑아 올리는 자태를 간직한 수그루를 알아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날이 꼭 올 겁니다. 제 꿈이 그렇거든요. 그놈을 봤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몹시 앓을 땐 내가 직접 그 수갈매나무가 되는 꿈을 꾸요. 아주 편안한 나무가 되는 꿈을 꾸요.

- 김소진, 「갈매나무를 찾아서」

* 우듬지: 나무의 꼭대기 줄기.

11. 〈보기〉는 (가)와 (나)에 대한 학생의 감상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보기 〉

(가)의 화자는 ㉠ 와/과 헤어져 타향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고, (나)의 '두현'은 이혼의 상처를 지닌 채 쓸쓸히 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이 처한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또한 (가)와 (나)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 (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는 굳센 이미지를 지닌 소재로, (가)의 화자와 (나)의 등장인물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되새기게 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도 유사합니다.

㉠: _____

㉡: _____

[12] ※ 다음은 사람에게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는 해충 '이[蠃]'와 '개[犬]'의 죽음을 소재로 한 고려 시대의 글이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저녁에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 너무 참혹해서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맹세코 개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를 끼고 앉아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손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이[蠃]는 작은 벌레 아닙니까? 나는 큰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한 말인데, 당신은 일부러 이를 예로 들어 대꾸하니 이것은 나를 놀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다. 나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말·돼지·양·벌레·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결 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은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큰 놈과 작은 놈을 대조한 것이지 당신을 놀리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못 믿겠으면 당신의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그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큰 뼈마디와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살이 있으니 그 아픔은 같은 것이 아



니겠습니까?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소의 뿔과 같이 보고, 메추리를 대붕(大鵬)*과 동일시하도록 해 보세요. 그 후 나는 당신과 함께 도(道)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 이규보, 「슬견설(蝨犬說)」

* 대붕: 하루에 구만 리(里)를 날아간다는, 매우 큰 상상(想像)의 새.

12.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대화이다. □와 ◻ 중, 자신이 공감하는 입장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 보기 〉

학생 1: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동일하다’는 ‘나’의 의견에 공감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蝨]와 모기가 해롭다는 건 사람의 편견일 뿐이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싫은 건 똑같이 싫은 거야.

학생 2: 하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나는 ‘손님’의 말에 더 공감돼. 나는 사람이고 이[蝨]나 모기는 해충인걸. 그럼 내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도 생명체이니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약도 먹지 말라는 거네.

나의 의견: 나는 ‘나’() / ‘손님’()의 의견에 공감해. 왜냐하면

[1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계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 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켜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



있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쉼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젠 또 뭐야 싶어서 그 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지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흥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얹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험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중략)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 김유정, 「동백꽃」

* 마름 :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 배재 : 마름과 소작인 사이에 교환한 소작권 위임 문서.

1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나는 대화이다. 학생들의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 : 점순이가 ‘느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도 남몰래 감자를 챙겨 주는 걸 보면,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 게 분명해. …………… ①

학생 2 : 맞아. 점순이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를 보니, 내 마음을 몰라주던 그 애가 문득 떠올랐어. …… ②

학생 3 : 그 애가 누군데? 궁금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봐.

학생 2 : 누군지는 비밀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게 혼자 점순이를 좋아했던 ‘나’처럼 나만의 추억으로 간직할래. …………… ③

학생 3 : 그런데 점순이네와 ‘나’의 집은 ‘마름’과 ‘소작농’의 관계잖아. 그래서 나는 점순이를 연애 상대로 보지 않았던 것 아닐까? …………… ④

학생 1 : 아, 그런 거였어?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니까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아.

학생 2 : 맞아. 그리고 자존심 상한 점순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쓴다는데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나는 너무 궁금해. …………… ⑤



[1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 죄악을 향한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소말리아
 한 어린이의
 오체투지*의 예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자정이 넘어 취한 채 귀가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게운
 내가 우연히 펼친 <TIME>지의 사진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 이승하, 「이 사진 앞에서」

*금세기: 지금의 세기.

*호의호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오체투지: 불교에서, 절하는 법의 하나. 먼저 두 무릎을 땅에 꿇고, 두 팔을 땅에 댄 다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함.

14. 다음은 윗글을 감상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학생들의 반응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 이 작품은 작가가 술을 마시고 음식을 게워 내다가 우연히<TIME>지에 실린 어린이의 사진을 보고 느낀 반성을 시로 표현한 것이래.

학생 2: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이라는 구절이 ‘사진’ 속 어린이와 같은 이들에게 무관심했던 나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 ①

학생 1: 1연을 보면 시행이 짧아지면서 ‘인류’, ‘인간’, ‘우리’, ‘나’로 축소되잖아. 이것이 문제가 ‘나’에게 점 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②



학생 2: 맞아, 2연은 ‘소말리아의 한 어린이’의 의미가 ‘나’에게까지 확장되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그걸 시구로 시각화했다니 정말 대단한걸. ③

학생 1: 시각적으로는 축소되었다가 확장되는 느낌을 주는 게 독특하네. 그렇지만 시의 매력인 운율적 요소가 없어 아쉬운걸. ④

학생 2: 마지막 시행 다음에 생략된 말이 화자가 반성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여운이 남아. ⑤

[1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는 승민이를 좋아한다
이 사실을 아는 건 세상에 나밖에 없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승민이가 진희의 얼굴을 보고 있다
진희와 눈이 마주치자
승민이는 컷볼까지 빨개진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이 찢어진다

(3인칭 관찰자 시점)

진희, 승민, 수연이 벤치에 앉아 있다
승민이는 진희의 얼굴을 보고 있고
수연이는 승민이의 얼굴을 보고 있다
진희와 눈이 마주치자
승민이는 컷볼까지 빨개지고
㉠ 그 모습을 본 수연이는 입술을 깨문다

(전지적 작가 시점)

승민이는 진희를 좋아한다
짝사랑이다
수연이는 승민이를 좋아한다
역시 짝사랑이다

- 이장근, 「슬픈 시점」



- 학생 1: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짜면서도 웃고 있는 허 생원을 그리면 될 것 같아. …………… ②
- 학생 2: 좋아, ‘덜덜덜’이라는 글씨를 떨고 있는 허 생원 그림 옆에 써 주자. 그리고 등장인물의 대화 부분은 말풍선과 함께 한 사람마다 한 칸씩 그려 넣자. …………… ③
- 학생 1: 채찍이 동이 왼손에 들려 있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니까 생략해도 좋겠어. …………… ④
- 학생 2: 전체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달밤의 풍경과 함께 나귀에 짐을 싣고 걷는 세 사람을 한 컷에 그려 넣는 건 어때? 나귀 목에는 방울을 그려 주고, ‘딸랑딸랑’이라는 글씨로 분위기를 표현하며 마무리 하는 거야. …………… ⑤

[1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17. 다음은 윗글을 영상 시로 제작하는 모둠 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학생들의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생 1:** 정지용의 '향수'를 영상 시로 만들기로 했잖아.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면서, 시상의 전개 과정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면 좋겠는데 의견을 말해 줘.
- 학생 2:** 그림 1연에서는 넓은 들판을 멀리 바라보는 기법으로 촬영한 영상과 황소의 긴 울음소리와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활용하는 게 좋겠어. ①
- 학생 3:** 2연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밤에 늙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얼굴을 클로즈업하면 되겠어. .. ②
- 학생 1:** 3연에서는 자연 속에서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노는 장면을 구성하여 순수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 나도록 하자. ③
- 학생 2:** 4연에서는 검은 머리카락이 풍성한 여동생의 모습과 힘든 농사일로 지친 고단한 아내의 모습을 대비시켜, 가족 간의 갈등을 암시하는 게 좋겠어. ④
- 학생 3:** 마지막 5연에서는 가난하지만 소박한 시골집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단란한 모습을 연출해 보자. ⑤

[18] ※ 다음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기억하나요?
학생: 네.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언어 예술을 말해요.
선생님: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어란 한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사용해 온 언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한글은 조선 시대에 만들어졌으니 그 이전에 지어진 작품들은 한문으로 창작된 것들도 많겠군요.
선생님: 맞아요. 다음 작품은 통일 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가야산에 은거하며 한문으로 창작한 한시입니다.

| | |
|---|--|
|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사람 말소리야 지척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하기에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
|---|--|

-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선생님: 이광수리는 작가는 최치원이 쓴 작품들이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를 중국 문학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최치원의 작품을 한국 문학으로 보아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학생: 그 이유는 _____ ㉠ _____ 때문입니다. 한글로 창작되어야만 한국 문학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문학의 범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군요.

18.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기
- ② 작품을 표기한 문자가 한국 문학을 결정하기
- ③ 작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국 문학을 판단할 수 있기
- ④ 현대에도 한국 문학의 주된 창작자가 한문을 사용하기
- ⑤ 한글이 없던 시대에 한국인이 사용한 한문은 한국어로 볼 수 있기

[1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용소*는 장연읍에서 한 이십 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연읍에서 그 서도 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거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재(長者)* 첩지네 집터 자리라 그래. 장재 첩지네 집터 자린데, 거게서 그 영감이 수천 석 하는 부자루 아주 잘살구 거기다 좋은 집을 짓구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깡쟁이가 돼서,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두 주지 않구,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래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 구걸을 와두 당최 주질 않구, 또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두 도무지 주지를 않구, 그런 아주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감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이십 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게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 우정 인지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이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불사*하구, 땀기면서 얻어만 먹구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루 인지 쌀 한 톨이라두 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구.”

소리를 질러두 그대루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앓구섬날 독경(讀經)을 하구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지금은 대개 샅이라는 게 있지마는 옛날에는 저 그것을 뉘이라구 하나, 부삽이라구 하나. 그거 있는데 그걸 루 두엄 더미에서 쇠똥을 퍼 가주구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구서는 바랑에다가 쇠똥을 열단 말야.

- 작자 미상, 「용소와 머느리바위」

* 용소: 폭포수가 떨어지는 바로 밑에 있는 깊은 웅덩이.

* 인지: 이제, 바로 이때.

* 장재: 장자.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

* 불농불사: ‘불농불상(不農不商)’의 잘못. 농사를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놀고만 지냄.



19.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대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보기 >

학생 1: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한국 문학에는 입말로 전승된 구비 문학과 글말로 전승된 기록 문학이 있다는 내용 기억나?

학생 2: 맞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선녀와 나뭇꾼’과 같은 전래동화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구비 문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 그리고 신라 시대에 향찰로 기록된 향가와 같은 기록 문학도 한국 문학에 속한다는 사실도 배웠잖아.

학생 1: 그렇다면 ‘용소와 며느리바위’는 ‘인지’와 같은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이 많다는 점에서 ㉠ □□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

학생 2: 나도 그렇게 생각해.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역 특색이 드러나는 ㉡ □□을/를 사용해 생동감이 넘친다는 점도 들 수 있어.

㉠: _____

㉡: _____

[2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 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 작자 미상, 「봉산 탈춤」

* 개잘량: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매만져서 부드럽게 만든 개의 가죽.

* 개다리소반: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흰 질이 낮은 소반.

(나)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즈음 의기 자못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 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흥, 어느 놈이 아, 어느 놈이 날 뭐라구 허며, 날 팔시혈 놈이 어딴어, 지금 이 천지에. 흥 참, 어렵없지, 어렵없어.”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를 하며, 팔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특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삼십 도는 너넉 빼뺏어진 코를 벌썹벌썹해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

“내 참, 이래 배두, 응, 동양 삼국 물 다 먹어 본 방삼(方三)복이우. 청얼 못허나, 일얼 못허나, 영어야 뭐 말할 것두 없구…”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 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 그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 선생으로도 불리어지는 시방도 무심 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의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으득으득 씹는다.

- 채만식, 「미스터 방」

20. 다음은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문학의 특성을 정리한 내용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 ㉡은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이/가 우리 문학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보기〉

묘사 비유 우화 풍자

[2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하락)

- 정극인, 「상춘곡」

- *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지락: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 울울리: 우거진 숲.

(나)

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 맡겨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없으니 돌려두고 보리라.

- 송순

- * 초려삼간: 아주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집.



21. 다음은 (가)와 (나)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와/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房) 안에 췌는 촛(燭)불 놀과 이별(離別)하엿관대
 것호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줄 모로는고
 우리도 저 촛불 갖하야 속 타는 줄 모로노라

- 이개

(나)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한져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어와 너여이고 나의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 괴암즉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
 나도 입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엿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누워 생각하고 일어 앓아 헤아리니
 내 몸의 지은 죄 뵈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설위 풀쳐 헤니 조물의 탓이로다 (하략)

- 정철, 「속미인곡」

22.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선생님과 나눈 대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보기> —

선생님: 우리의 옛 시가 중에는 신하가 임금에 사모하는 노래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러한 시가 들은 대체로 자나 깨나 입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노래라는 형식을 띠었는데, (가)와 (나)에서도 그러한 형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 그렇다면 (가)와 (나)의 화자가 이별한 대상은 ㉠ □□(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군요.

선생님: 그렇죠. (가)는 촛불에 감정이입하며 이별을 슬퍼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나)는 입을 닦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별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학생: (가)와 (나)의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충성스러운 ㉡ □□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 _____, ㉡: _____



[2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라

주렴(珠簾)* 밖에 성긴 별이
하나들 스러지고

귀족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문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이는 이 있을까
저허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

* 주렴: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발.

23.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보기〉

한국 문학에 사용되는 소재 중에는 관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우리 선인들은 두견새, 혹은 점동새로 불리는 ‘귀족도’를 한을 품은 새로 인식하였고, 이 때문에 ‘귀족도’는 한국 문학에서 쓸쓸하고 슬픈 상황에 즐겨 사용되었다. ‘낙화’는 세상을 피해 은둔하여 살아가는 화자가 _____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슬픔을 귀족도 울음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래한 시이다.



[2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卒本夫餘)다. (중략) 시조 동명성제(東明聖帝)는 성이 고씨(高氏)이고 이름은 주몽(朱蒙)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 가 살았는데, 부루가 죽자 금와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금와는 그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優渤水)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하였다.

㉠ “저는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제(天帝)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熊神山) 아래 압록강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통(私通)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드디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금와는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그녀가 (몸을) 피하자 햇빛이 또 따라와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되쯤 되었다. 왕이 이것을 개, 돼지에게 던져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그 알을 피해 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나 짐승이 알을 덮어 주었다. 왕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화에게 돌려주었다. ㉡ 유화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 따뜻한 곳에 두자 어린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 나이 겨우 일곱에 용모와 재력이 비범했으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백 번 쏘아 백 번 맞추었다. 나라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

- 작자 미상, 「동명왕 신화」

24. ㉠~㉢을 건국 신화의 특성 ㉠~㉢ 중 해당하는 내용과 연결하시오.

- | | |
|-------|------------|
| (1) ㉠ | ▪ ㉠ 초월적 능력 |
| (2) ㉡ | ▪ ㉡ 신성한 혈통 |
| (3) ㉢ | ▪ ㉢ 신이한 출생 |

[2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A]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흥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 흥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太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선후면 : 서운하면, 마음에 거슬리면, 내키지 않으면.

25.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선생님과 나눈 대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보기〉

선생님 : 고려 가요는 대개 오랜 시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노래 중 일부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으며 이뤄졌어요. 고려 가요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 : 고려 가요가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라서 그런지 '가시리'처럼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과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 맞아요. 또한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려 가요는 주로 ㉠ □음보로 되어 있고,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가 많아요. [A] 부분 역시 고려 가요의 특징적인 점으로 볼 수 있지요. [A]가 작품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볼까요?

학생 : [A]는 ㉡ □□□(으)로 연이 바뀌는 것을 알려 주고, 흥을 돋우고 있어요.

㉠ : _____, ㉡ : _____

[2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春風)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퍼리라

- 황진이

(나)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알미오라
뒤편 님 오며는 꼬리를 뒹개 치며 뛰락 나리 뛰락 반겨서 내닷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부르락
나으락 캉캉 즈저서 도라가게 한다
흰밥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 작자 미상

26.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 하시오.

- (1) (가)는 3장 4음보 형식의 평시조이다. ()
- (2) (나)는 종장의 첫 어절이 격식에서 벗어난 사설시조이다. ()
- (3) (가)와 (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조이다. ()



[2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명을 본받지 못하면 차라리 병법을 외워, 대장군의 인장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과 서로 정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로서 흔쾌히 할 일이다. 나는 어찌하여 한 몸이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건만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오!”

(중략)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자지 아니 하느냐?”

길동이 공경하며 대답했다.

“소인이 마침 달빛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그중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만, 소인에게에는 귀함이 없으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이 그 말뜻을 짐작했지만, 짐짓 책망하여 말했다.

“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길동이 거듭 절하고 말씀드렸다.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도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가 되었으니, 아버님이 낳으시고 어머님이 기르신 은혜가 깊은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길동이 눈물을 흘려 적삼을 적셨다. 공이 다 듣고 나서 비록 길동이 불쌍하지만, 그 뜻을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해질 것을 염려하여 크게 꾸짖었다.

- 허균, 「홍길동전」

27.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보기> —

선생님 :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은 적서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축첩 제도가 있어, 정실부인에게서 난 자식인 적자와 정실부인이 아닌 여자에게서 낳은 서자를 차별하였습니다. 서자인 경우 능력이 있어도 높은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등 사회적 제약이 따릅니다. 작품에서 홍길동은 아버지께 자신을 ‘소자*’가 아닌 ‘소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홍길동이 적자인지 서자인지 알 수 있어요.

학생 : 홍길동은 자신을 ‘소인’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요. 열심히 노력해도 □□라서 출세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처지가 가여워요.

* 소자: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말.

* 소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표현한 말.



[28]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씨의 친정은 노돌*이라. 그 동리 풍속이 자래로 제일 숭상하는 것은, 존대하여 말하자면 만신이요, 마구 말하자면 무당이라 하는, 남의 집 망해주며, 날불한당질 하는 것들을 남자들은 누이님, 아주머니, 여인들은 형님, 어머니 하여가며 개화 전 시대에 칙사 대접하듯 하여, 봄가을이면 의례히 찰떡 치고 메떡 치고 쇠머리, 북어쾌를 월수, 일수 얻어서라도 기어이 장만하여 철무리* 큰곳을 하여야 세상일이 다 잘될 줄 아는 동리니, **최 씨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뿐이러니**, 시집을 와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어디가 뜨끔만 하면 무꾸리*질이요, 남편이 이틀만 아니 들어와 자도 살풀이하기라. 어디 새로 난 무당이 있다든지, 신통한 점쟁이가 있다면 남편 모르게 가도 보고 청해다도 보아, 노구메*를 올리라든가 기도를 하라든가, 무당의 입이나 점쟁이 입에서 뚝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행을 하니, 이는 최 씨 부인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위하여 그리하는 바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사람의 일동일정*으로 죽고 사는 일까지라도 귀신의 농락으로만, 물 부어 쌀 틈 없이 꼭 믿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는 것이러라.

- 이해조, 「구마검(驅魔劍)」

- * 노돌 : 노랑진.
- * 철무리 : 철맛이 굵. 집안의 번영과 지손의 창성을 비는 재수굿의 일종.
- * 무꾸리 :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길흉을 점치는 일.
- * 노구메 : 신령에게 제사하기 위해 노구술에 지은 메밥.
- * 일동일정(一動一靜) : 하나하나의 동정.

28.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이다. ㉠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선생님 : ‘구마검’은 미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한 신소설입니다. 구습을 타파하고 개화사상을 고취하는 신소설의 특성을 잘 보여 주는데, 여기서 ‘구마검(驅摩劍)’은 마귀를 쫓아내는 데 쓰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학생 : 윗글에서 ‘최 씨가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뿐이러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 □□을/를 불러 큰곳을 하는 모습에서 무속 숭배가 널리 퍼진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 : _____

[2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풀이면 다 뿌리가 있는데
 ㉠ 부평초만은 매달린 꼭지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며
 언제나 ㉡ 바람에 끌려다닌다네
 목숨은 비록 붙어 있지만
 ㉢ 더부살이 신세처럼 가날프기만 해



- ㉔ 연잎은 너무 괘시를 하고
 ㉕ 행채*도 이리저리 가리기만 해
 「
 [A] 똑같이 한 못 안에 살면서
 」 어찌면 그리 서로 어그러지기만 할까

- 정약용, 「고시(古詩) 7」

* 행채 : 연못이나 늪에 나는 마름과의 한해살이풀.

29. (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정약용은 지배층인 양반의 신분임에도 당대 피지배층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관리들의 착취와 횡포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목격하면서 관리들이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관리들이 본분을 잊고 힘없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여러 글을 통해 비판하였고, 관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였다.

- ① ㉔ : 의지할 곳 없는 힘없는 백성들의 삶을 표현한 것 같아.
 ② ㉕ : 지배층의 횡포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상황을 표현한 것 같아.
 ③ ㉔ : 백성들에 대한 작가의 연민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아.
 ④ ㉕ :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관리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
 ⑤ ㉕ : 관리의 본분을 다하려고 애쓰는 작가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

(2) 윗글의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A]에 주목하여 쓰시오.

[3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㉑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㉒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㉓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뺨과리를 앞장세워 ㉔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農舞)」

30. ㉑~㉔ 중, 〈보기〉의 ㉔에 해당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보기〉

1960~197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로, 도시 곳곳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도시에서 일할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반면 농촌에서는 ㉔ 농사를 지어서는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의 공장이나 서비스 산업으로 유입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가속화되고 농촌은 급속도로 황폐해졌다.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3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날 아침 뒤숭숭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이 침대에서 흉측한 모습의 한 마리 갑충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철갑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들어 보니 아치형의 각질 부분들로 나누어진,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다.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은 이불은 배의 높은 부위에 가까스로 걸쳐 있었다. 몸뚱이에 비해 애처로울 정도로 가느다란 수많은 다리들은 그의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하릴없이 버둥거리고 있었다.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뒷부분 줄거리] 가족을 부양하던 그레고르가 경제력을 상실하자 가족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가족들은 직업을 구하고 하숙을 하며 살아갈 길을 모색한다. 하숙을 운영하던 중, 하숙인들이 그레고르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은 화를 내며 나가 버린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원망한다.

- 프란츠 카프카, 「변신」

(나)

그때였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해 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움직이리라고 마음 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 했을 때였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만져 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 석고처럼 딱딱하고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 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스위치 있는 쪽으로 가리라고 결심했다.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 있는 곳까지 가려고 안간힘



을 썼다. 그러나 그는 채 못 미쳐 이미 온몸이 굳어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는 슛제 체념해 버렸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하였다. 그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다음 날 오후쯤 한 여인이 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 매우 놀라서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었지만, 놀란 가슴을 누르며 온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는데 틀림없이 그녀가 없는 새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긴 했지만 자세히 구석구석 살펴본 후에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안심해 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잃어버린 것이 없는 대신 새로운 물건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물건은 그녀가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으므로 며칠 동안은 먼지도 털고 좀 뒹하긴 하지만 키스도 하긴 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렸고 싫증이 났으므로 그 물건을 다락 잡동사니 속에 처넣어 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 방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메모지를 찢어 달필로 다음과 같이 써서 화장대 위에 놓았다.

여보, 오늘 아침 전보가 왔는데 친정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잠깐 다녀오겠어요. 당신은 피로하실 테니 제가 출장 갔다고 할 테니까 오시지 않으셔두 돼요. 밥은 부엌에 차려 뒀어요.

당신의 아내가

- 최인호, 「타인의 방」

31. 다음은 (나)의 □가 (가)의 그레고르 잠자에게 쓴 편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그레고르 잠자에게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소. 당신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 편지를 쓰오. 출장을 마치고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는데, 집에는 아내의 편지만 있고 아내는 없었소.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웃들이 벨을 누르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갈등이 있었소.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다가 가구들이 흔들리더니 나도 가구와 같은 사물이 되어 버렸소.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한동안 관심을 갖다가 팽개치고 또 떠나 버렸소.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인지 알지는 못하겠으나, 당신도 그렇겠지만 ㉠ □□을/를 하고, 가까운 가족에게 ㉡ □□감을 느끼게 되니 마음이 아프오.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단절된 이 상황이 불안하오.

< 보기 >

유대 변신 소외 환생 신뢰

㉠: _____

㉡: _____



[3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은행장 승진을 앞둔 톨발 헬멜과, 그의 아내 노라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린데 부인이 노라의 풍요로운 생활을 부러워하자, 노라는 결혼 초기 중병에 걸린 남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죽은 부친의 서명을 위조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최근까지 빚을 갚고 있지만 그 일로 협박받고 있음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헬멜은 자신의 사회적 위신 때문에 그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며 노라를 질책한다. 린데 부인의 도움으로 노라가 차용증을 돌려받게 되자 헬멜은 노라의 행동을 용서하겠다고 말하지만, 노라는 헬멜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독립을 선언한다.

노라 글썽요, 톨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군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를 않는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란 모든 일에 대하여 저는 당신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이란 제가 여태껏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법이 옳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자에게는 돌아가시게 된 친정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할 권리가 없다니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 헨리크 입센, 「인형의 집」

(나)

“대체 무엇을 위해 독서하십니까?”

남편은 대답이 궁해지자 책을 탁 덮고 일어나 탄소리를 했다.

“애석하구나. 겨우 칠 년이라니.”

그리고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중략)

“나는 다시 출유하려 하오. 그러니 당신은 이 집을 정리하고 수레별 큰택에 몸을 위탁해 있으시오. 이미 사촌 큰형님과 상의해 두었소.”

“집을 판다면…… 아주 안 돌아오십니까?”

“나도 모르오. 내 뜻이 이곳에 없으니 장담하기 어렵소.”

“그렇다면 차라리 저와 절연하시지요.”

“무슨 해괴망측한 소릴 하오? 우린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어찌 쉽게 깨뜨린단 말이오? 사람에게겐 신의가 중요한 것이오.”

“남자들은 저 편리한 대로 신의니 뭐니 하더군요. 우리가 혼인한 것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어찌 그 약속이 여자 홀로 지켜야 할 것입니까? 당신이 그걸 저버리고 절 돌보지 않으니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할 상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전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합니다.”

“사대부 집 아녀자가 어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오. 당신이 인륜을 저버리고 예의, 염치도 모르리라고 생각지 않소.”

“인륜? 예의? 염치? 그게 무엇이지요? 하루 종일 무릎이 시도록 웅크리고 앉아 바느질하는 게 인륜입니까? 남편이야 무슨 짓을 하든 서속이라도 꾸어다 조석 봉양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 술친구 대접까지 해야 그게 예의라는 말입니까? (중략) 당신은 무엇 때문에 십 년이나 기약하고 독서했지요? 당신은 대답할 수 없으시지요! 난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 살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때문이라고요. 난 그렇게 하고 싶고, 꼭 할 거예요…….”

- 이남희, 「허생의 처」

32.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 □□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군.

㉠: _____

[33]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몬터규 가문과 캐플렛 가문은 원수지간이다. 몬터규 가문의 사람인 로미오는 초대받지도 않은 캐플렛 가문의 연회에 갔다가 줄리엣을 만난다.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지만 서로가 원수의 가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줄리엣 아 로미오, 로미오! 왜 당신은 로미오예요? 아버지를 잊어요. 그 이름을 버려요. 그것이 싫다면 날 사랑한다고 맹세해요. 그럼 내가 캐플렛성을 버릴 거야.

로미오 (방백) 좀 더 들어 볼까, 말을 걸어 볼까?

줄리엣 당신 이름만이 나의 원수일 뿐, 비록 몬터규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이야. 몬터규가 뭐데? 손도 발도 팔도, 얼굴도 아니고, 사람 몸의 어떤 부분도 아니잖아. 아, 딴 이름이 돼 주어요!

- 셰익스피어, 「로미오와 줄리엣」

(나)

[앞부분 줄거리]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광한루에서 그네를 타는 퇴기 월매의 딸 성춘향에게 첫눈에 반한다. 이몽룡은 자신이 부리는 방자에게 성춘향을 데려오라고 시킨다. 방자는 성춘향에게 이몽룡의 뜻을 전하고, 이몽룡과 성춘향은 서로 만나게 된다.

“너도 귀한 딸이로다.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변치 않는 즐거움을 이뤄 보자.”

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쯤 열어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 고운 음성으로 여쭙오되,

“충신은 두 입금을 삼키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 작자 미상, 「춘향전」

33. (가)와 (나)는 모두 청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가)와 (나)의 갈등 요인을 각각 쓰시오.

(가): _____

(나): _____



[3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짜부딘, 사장이 너무 불쌍해.”
 “난 사장 죽도록 미웠어. 간쭈, 너 때문에 오늘 일 다 망친 거야.”
 “난 사장님, 돈 쥐 소리 못 하겠어. 사장 돈 없어, 몸 아파, 어머니 아파, 사장 슬퍼.”
 “그래도 사장한테 말을 해야 했어.”
 “나는 사장님 돈 쥐, 소리 못 해. 왜냐, 사장 돈 없어.”
 “간쭈, 언제 떠나?”
 “모래, 오늘 밤, 내일 밤 자고 모래, 내일은 시내 가서 윤도현 음악 시디하고 고무장갑하고 소주하고 옷하고 신발하고 여러 가지를 살 거야. 난 윤도현 왕팬이야.”
 “간쭈, 넌 너희 나라 가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가면, 엄마, 아버지, 누나, 여동생, 사촌들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야. 우리 나라 네팔 달 볼 거야. 내가 뭘 할 건지, 달한테 물어볼 거야. 짜부딘은?”
 “여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 시골이야. 동생이 남편한테 맞았어. 동생 많이 슬퍼. 형이 한국 여자랑 결혼했어. 형 여자 도망갔어. 조카 있어. 형이랑 조카 많이 슬퍼. 부모님 돌아가셨어. 우리 나라, 방글라데시 가도 나는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난 갈 수 없어. 형 다쳤어. 손가락 잘렸어. 조카 살려야 해.”
 “부딘, 난 한국에서 슬플 때 노래했어. 한국 발라드야. 사장이 막 욕해. 나 여기, 심장 막 뛰어. 손가락 막 떨려. 눈물 막 흘러. 그럼 노래했어. 사랑 못 했어. 억울했어. 그러면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달을 봤어. 크고 아름다운 네팔 달이야.”
 간쭈가 다시 노래한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오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 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또다시 따라 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 공선옥, 「명랑한 밤길」

34. (1) ‘간쭈’와 ‘짜부딘’이 처한 상황의 공통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2) 자신이 ‘간쭈’와 ‘짜부딘’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태도를 서술하시오.

[35]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섰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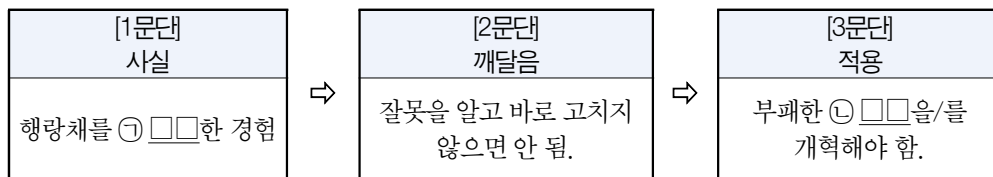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理屋設)」

* 행랑채 : 문간채. 대문간 곁에 있는 집채.

* 퇴락 :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짐.

35. (1) 다음은 윗글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 _____, ㉡ : _____

(2) 윗글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친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지.
- ② 자신의 단점이나 취약점을 알면서도 고치기를 망설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지.
- ③ 가벼운 증상도 지나치지 말고 그때그때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지.
- ④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 것이 진로 탐색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지.
- ⑤ 학습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때그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지.

[3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경인년(1470)에 큰 가뭄이 들었다. 정월부터 비가 오지 않더니, 가을 칠월까지 가뭄이 계속되었다. 이 때문에 땅이 메말라서 봄에는 쟁기질을 하지 못했고 여름이 되어서도 김매 것이 없었다. 온 들판의 풀들은 누렇게 말랐고 논밭의 곡식들도 하나같이 모두 시들었다.

이때 부지런한 농부는

“곡식들이 김을 매 주어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 주지 않아도 역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죽어 가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살리려고 애를 써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비가 오면 전혀 보람 없는 일이 되지 않는으리라.”



하고, 짹짹 갈라진 논바닥에서 김매기를 멈추지 않고 다 마르고 시들어 빠진 곡식 싹들을 쉬지 않고 돌보았다. 일 년 내내 잠시도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 곡식이 완전히 말라 죽기 전까지는 농사일을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한편 게으른 농부는

“곡식들이 김을 매 주어도 죽을 것이고, 김을 매 주지 않아도 역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부질없이 분주히 뛰어다니며 고생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버려 두고 편히 지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만약 비가 전혀 오지 않으면 모두가 헛고생이 될 테니까.”

하였다. 그래서 일하는 농부나 들밥을 내가는 아낙들을 끊임없이 비웃어 대며, 그해가 다 가도록 농사일을 팽개치고 들어앉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가을걷이를 할 무렵에 내가 파주(坡州) 들녘에 나가 논밭을 보니, 한쪽은 잡초만 무성하고 드문드문 있는 곡식들도 모두가 쪽정이뿐이었고, 다른 한쪽은 농사가 제대로 되어 잘 익은 이삭들이 논밭 가득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마을 노인에게 물었더니, 농사를 망친 곳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며 농사일을 하지 않은 농부의 것이었고, 곡식이 잘 영근 곳은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농사일에 애쓴 농부의 것이었다.

한때의 편안함을 찾다가 일 년 내내 굶주리게 되었고, 한때의 고통을 참아 내어 한 해를 배불리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아! 열심히 일을 하면 뜻한 바를 이루고, 편안하게 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농사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시서(詩書)를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도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선비들이 젊었을 적에는 학문에 뜻을 두고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책을 읽고 쉬지 않고 글을 짓는다. 그렇게 닦은 재주를 가지고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솜씨를 겨루는데,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 실망을 하고 두 번 떨어지면 번민하고 세 번 떨어지면 망연자실해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공명(功名)을 이루는 것은 분수가 있는 것이어서 학문을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며, 부귀를 누리는 것도 천명이 있는 것이어서 학문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하던 학문을 팽개쳐 버리고 지금까지 해 놓았던 공부도 모두 포기한다. 어떤 사람은 절반쯤 학문이 이루어졌는데도 내던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문턱까지 갔다가 주저앉아 버린다. 마치 ㉠ 아홉 길 높은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 산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게으름을 피우며 농사일을 제쳐 놓은 농부와 같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 성현, 「타농설(惰農說)」

* 삼태기 :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36. (1)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큰 가뭄에 대처하는 태도가 농부마다 다를 수 있다.
- ② 나이에 따라 학문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
- ③ 고통을 참아 내고 열심히 하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 ④ 학문하는 중에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아야 한다.
- ⑤ 과거 시험에 떨어져도 학문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2) ㉠에 해당하는 자신의 일상생활의 경험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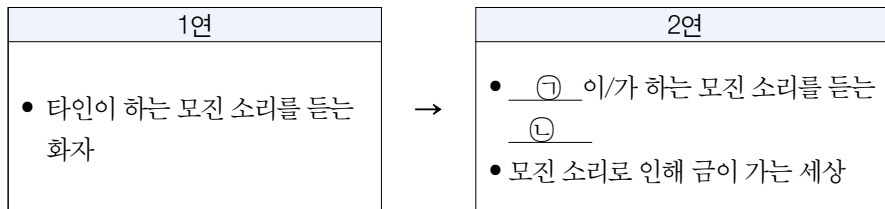
[3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진 소리를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모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진다.
온몸이 쿡쿡 아파 온다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찢 금 가게 했을
모진 소리

나와 헤어져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모진 소리,
늑골에 정을 친다
찌어영 세상에 금이 간다.

- 황인숙, 「모진 소리」

37. (1) 다음은 윗글의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_____, ㉡: _____

(2) 자신이 윗글의 나라면 누군가에게 해 주고 싶은 사과의 말을 쓰시오.

[38] ※ 다음은 문학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지수: 오늘 문학 수업 중 선생님께서 최인훈의 '광장'을 읽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공유해 보라고 하셨잖아.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도 문학 활동 경험을 공유해 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우: 그럼 최인훈의 ‘광장’을 읽었으니까 ‘광장’과 관련하여 토론할 거리를 찾아서 함께 토론해 보는 건 어때?

민지: 좋은 생각이야. 나는 학교 누리집 학급 공부방에 ‘광장’에 대한 감상문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작년에 학급 활동으로 감상문 올리기를 진행했었는데, 친구들이 나의 감상문을 읽고 감상문에 대한 댓글을 달아 주니까 친구들과 나의 생각의 차이점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거든.

지수: 얼마 전 신문 광고에서 봤는데, ‘광장 함께 읽기’라는 주제의 강연회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더라. 이 강연회에 참여해서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강연자에게 질문하고,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 보는 것은 어때?

민우: 오, 좋은 의견이야. 강연회에 참석해서 질문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많은 사람들과 작품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38. 위 대화에 나타난 ‘문학 활동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 〈 보기 〉
- ㉠ 작품 재구성하기
 - ㉡ 감상문에 대한 의견 주고받기
 - ㉢ 작품과 관련한 토론 진행하기
 - ㉣ 작품 관련 강연회에 참여하여 소통하기
 - ㉤ 작품 다시 읽어보며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39.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돌아보고 평가해 봅시다.

(1 : 그렇다, 2 : 보통이다, 3 : 그렇지 않다.)

| 점검 내용 | 1 | 2 | 3 |
|---|---|---|---|
| (1) 문학 작품 감상과 문학 작품 창작 등의 문학 활동을 경험하였는가? | | | |
| (2) 문학 작품을 읽고 궁금한 점이나 인상적인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했는가? | | | |
| (3) 문학 작품을 읽은 후, 자신이 읽은 작품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였는가? | | | |
| (4) 문학 작품을 읽고 작품과 관련하여 친구들과 토의 또는 토론 활동을 하였는가? | | | |
| (5) 문학 활동 경험 공유를 통해,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는가? | | | |

[40]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 도종환, 「담쟁이」

40. (1) <보기>는 윗글에 대한 작가의 말이다.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시구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살면서 수많은 벽을 만났습니다. 어떤 벽도 나보다 강하지 않은 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벽에서 살게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벽에서 시작하는 담쟁이. 원망만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잎을 찾아가 손을 잡고 연대하고 협력하여 마침내 절망적인 환경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꾸는 담쟁이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2) <보기>는 윗글의 시구를 활용하여 절망에 빠진 친구에게 보내는 휴대 전화 메시지이다. ㉠~㉤ 중, 시구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벽'을 느낄 때가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 일단 '말없이 그 벽을' 오르기를 시작해 보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 절대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뺨어 나가 보는 거야. 오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거야. 그래도 멈추지 말고 서로를 이끌며 함께 끝까지 오른다면 ㉤ '결국 그 벽을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① ㉠

② ㉡

③ ㉢

④ ㉣

⑤ ㉤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2. 〈문학〉 예시 평가 문항 정답 및 채점 기준

| 문항 번호 | 정답 | 채점 기준 | | |
|----------|-------------------------|---------------|-------|--|
|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1 | ③ | 문학의 인식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안다. |
| | | | 미도달 |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2 | 긍정 | 문학의 윤리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안다. |
| | | | 미도달 |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3 | 진실(사실) | 문학의 윤리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안다. |
| | | | 미도달 |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4 | ③ | 문학의 미적 기능 | 도달 | 문학의 미적 기능을 안다. |
| | | | 미도달 | 문학의 미적 기능을 알지 못한다. |
| 5 | 산 | 문학의 내용과 형식 | 도달 | 현대시에서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현대시에서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없다. |
| 6 | 진양조 (가장 느린) | 문학의 내용과 형식 | 도달 | 판소리 사설에서 내용과 장단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판소리 사설에서 내용과 장단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파악할 수 없다. |
| 7 | (1) ○ (2) ○ (3) × | 문학의 내용과 형식 | 도달 | 현대시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현대시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 |



| 문항 번호 | 정답 | 채점 기준 | | |
|----------|---|-----------------------------|-------|---------------------------------|
|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8 | ⑤ | 작가와 연결하여 작품 감상 | 성취 여부 | 기준 |
| | | | 도달 | 작품을 작가와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작품을 작가와 연결하여 감상할 수 없다. |
| 9 | (1)무능하고 가부장적인 남성의 모습 (2)현명하고 주체 적인 여성의 모습 |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결하여 작품 감상 | 성취 여부 | 기준 |
| | | | 도달 | 작품을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작품을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결하여 감상할 수 없다. |
| 10 | ② |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작품 감상 | 성취 여부 | 기준 |
| | | | 도달 |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없다. |
| 11 | ㉠: 가족(아내, 동생들, 부모) ㉡: 갈매나무 |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작품 감상 | 성취 여부 | 기준 |
| | | | 도달 |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에서 감상할 수 없다. |
| 12 | 생략 | 작품의 공감적·비판적 ·창의적 수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생각으로 소통한다. |
| | | | 미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생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 |
| 13 | ③ | 작품의 공감적·비판적 ·창의적 수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생각으로 소통한다. |
| | | | 미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생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 |
| 14 | ④ | 작품의 공감적·비판적 ·창의적 수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 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으로 소통한다. |
| | | | 미도달 | 작품을 수용하며 떠오른 다양한 생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 |
| 15 | 생략 |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성취 여부 | 기준 |
| | | | 도달 | 작품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표현한다. |
| | | | 미도달 | 작품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표현하지 못한다. |
| 16 | ④ |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성취 여부 | 기준 |
| | | | 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없다. |



| 문항 번호 | 정답 | 채점 기준 | | |
|----------|----------------------------------|------------------|-------|--|
|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17 | ㉔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 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작품을 읽고 매체를 바꾸어 재구성할 수 없다. |
| 18 | ㉕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이해 | 도달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 19 | ㉖: 구비 ㉗: 방언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이해 | 도달 |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비 문학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비 문학의 개념을 파악할 수 없다. |
| 20 | 풍자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풍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풍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21 | 자연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자연 친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자연 친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22 | ㉘: 임금/군주 ㉙: 신하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총신연주지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총신연주지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23 | 떨어지는 꽃 (꽃이 떨어지는 것 등)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 도달 | 글에 드러난 한(恨)의 정서리는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한(恨)의 정서리는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할 수 없다. |
| 24 | (1)㉚ - ㉛ (2)㉜ - ㉝ (3)㉞ - ㉟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 |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 | 도달 | 글에 드러난 건국 신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건국 신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문항 번호 | 정답 | 채점 기준 | | |
|----------|---|---------------------|-------|---|
|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25 | ㉠: 3 ㉡: 후렴구/여음구 |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 | 도달 | 글에 드러난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고려 가요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26 | (1) ○ (2) × (3) ○ | 한국 문학의 갈래별 특성 | 도달 | 글에 드러난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글에 드러난 시조의 갈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
| 27 | 서자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 | | | 미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지 못한다. |
| 28 | 무당(만신)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인물의 행위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인물의 행위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 시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
| 29 | (1) ㉡ (2) 여러 사람이 어그러지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것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
| | | | 미도달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요소를 찾지 못한다. |
| 30 | ㉡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도달 | 시대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
| | | | 미도달 | 시대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찾지 못한다. |
| 31 | ㉠: 변신 ㉡: 소외 | 모티프의 보편성 | 도달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공통된 모티프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공통된 모티프의 역할을 파악하지 못한다. |
| 32 | 여성 | 사회문화적 맥락의 보편성 | 도달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공통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공통된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 |



| 문항 번호 | 정답 | 채점 기준 | | |
|----------|--|----------------------|-------|---|
| | | 내용 | 성취 여부 | 기준 |
| 33 | (가): 가문 간의 갈등 (나): 신분차의 차이 | 사회·문화적 맥락의 특수성 | 도달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
| 34 | (1) 생략 (2) 생략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 |
| 35 | (1) ㉠: 수리 ㉡: 정치 / 나라 (2) ④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의 생활화를 경험한다. |
| | | | 미도달 | 문학 활동을 통해 문학의 생활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
| 36 | (1) ② (2) 생략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인물의 등장인물의 처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 |
| 37 | (1) ㉠: 화자(나) ㉡: 타인(누군가) (2) 생략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 | 도달 |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작품을 감상하며 작가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을 비교하지 못한다. |
| 38 | ㉡, ㉢, ㉣ | 문학 활동 경험 공유하기 | 도달 | 문학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을 2개 이상 찾을 수 있다. |
| | | | 미도달 | 문학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을 1개 이하로 찾을 수 있다. |
| 39 | 생략 | 문학 활동 경험 공유하기 | 도달 | 문학 활동 경험과 관련한 점검표의 항목 중 '그렇지 않다(3)'가 2개 이하이다. |
| | | | 미도달 | 문학 활동 경험과 관련한 점검표의 항목 중 '그렇지 않다(3)'가 3개 이상이다. |
| 40 | (1)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2) ④ | 문학 활동 경험 공유하기 | 도달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
| | | | 미도달 | 자신의 문학 활동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지 못한다. |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매뉴얼 국어. 교육부 연구자료 ORM 2022-44-1.
- 김현정 외.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7-5-2.
- 노은희 외. (2019).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9-3.
- 도종환. (2011).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한겨레출판.
- 안도현. (2004). 외롭고 높고 쓸쓸한. 문학동네.
- 이장근. (2015). 나는 지금 꽃이다. 푸른책들.
- 이해조. (1996). 자유종. 창작과비평사.
- 최인호. (2022). 타인의 방. 문학동네.
- 한국문인협회 남양주지부. (2020). 조지훈 선집. 삼사재.

(문학) 최소 성취수준 보장 교수·학습 지원 자료집

총괄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조병현

지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팀 장학관 이규연

기획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고교학점제팀 장학사 정용진

집필 및 검토(전체)

| | |
|-------------|--------|
| 동아여자고등학교 | 교사 여은화 |
| 광주제일고등학교 | 교사 김소희 |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 교사 김주연 |
| 광주제일고등학교 | 교사 이지웅 |
| 선운중학교 | 교사 한선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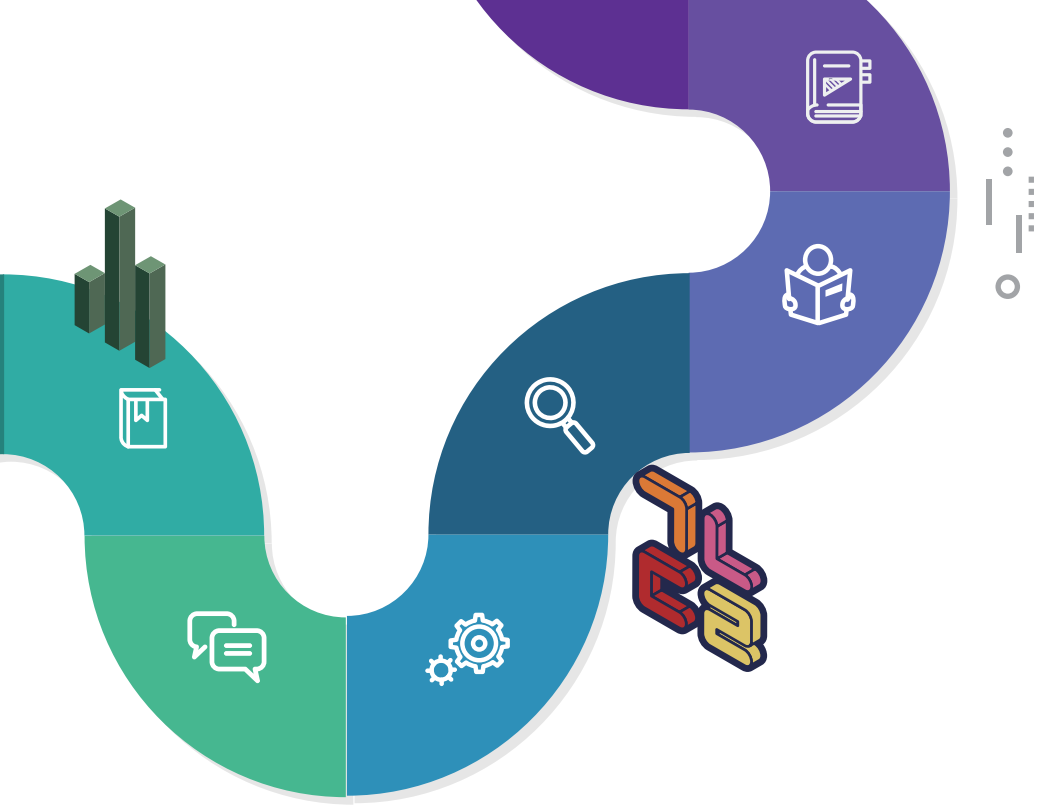
검토(Ⅱ, Ⅲ장)

| | |
|----------|--------|
| 동아여자고등학교 | 교사 기다은 |
| 운남고등학교 | 교사 이윤선 |
| 상무고등학교 | 교사 홍희진 |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광주광역시교육청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있습니다.
-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인용,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구현

최소 성취수준 보장 교수·학습 지원 자료집

문학